

## 응급실 방문 손상환자 중 추락·낙상이 3분의 1 차지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2020년 주요 결과 발표

**응급실 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보고회**  
 2021. 12. 09.  
 THU 13:00-17:30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3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3  
 온라인 화상회의 200M  
 02-222-7946 / 9040 / 1899-9659

세부항목	2020-12-10 (일)	2020-12-11 (월)
13:00-13:30	개회식	개회식
13:30-14:00	13:30-14:00	13:30-14:00
14:00-14:30	14:00-14:30	14:00-14:30
14:30-15:00	14:30-15:00	14:30-15:00
15:00-15:30	15:00-15:30	15:00-15:30
15:30-16:00	15:30-16:00	15:30-16:00
16:00-16:30	16:00-16:30	16:00-16:30
16:30-17:00	16:30-17:00	16:30-17:00
17:00-17:30	17:00-17:30	17:00-17:30
17:30-18:00	17:30-18:00	17:30-18:00

질병관리청은 12월 9일 「2021년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응급실 기반의 손상조사사업의 2020년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2006년부터 응급실 기반의 손상조사사업체제로 응급실 손상환자심층조사를 도입하여, 23개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를 대상으로 손상 내용, 원인 등을 심층 조사하고 있다.

응급실은 손상의 부위, 내용, 중증도 면에서 다양한 손상 환자를 관찰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손상 발생 시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를 통해 2020년 수집된 자료는 206,887명으로, 조사 수행 기관 수를 23개로 확대한 2015년 이후 가장 낮았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응급실 방문 손상환자 수는 27~30만여 명 범위를 유지하였으나 2020년에 감소하여 2019년의 75%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 응급실 방문 손상환자는 남자가 58.0%로 여자(42.0%)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0~9세가 19.7%로 가장 많았다.

2020년 응급실 방문 손상환자 중 입원한 환자는 31,554명, 사망한 환

자는 2,534명으로, 2019년에 비해 입원환자(36,058명)는 12% 감소했고, 사망환자(2,630명)는 4% 감소했다.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추락 및 낙상 환자가 33.3%로 가장 많았고, 둔상(부딪힘)이 19.2%, 운수사고가 15.3%로 그 다음 순이었다.

연령별로, 0~9세, 40세 이상에서는 추락 및 낙상이 가장 많았고, 특히 70세 이상은 62.9%가 추락 및 낙상으로 응급실에 방문했다.

2019년 결과와 비교할 때, 전체 손상환자 중 운수사고, 추락 및 낙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고, 둔상 환자는 2019년 21.3%에서, 2020년 19.2%로 감소했다.

전체 손상환자 중 15.3%가 입원하였고, 1.2%가 사망하였으나, 중독 환자는 입원율이 37.2%, 사망률이 2.2%로 전체 입원 및 사망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운수사고(입원 24.5%, 사망 2.5%), 추락 및 낙상(입원 20.3%, 사망 1.4%)도 높은 편이었다.

자해·자살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10,272명이었으며 폭력·타살 손상환자는 9,266명으로, 전체 손상환자 중 각각 5.0%, 4.5%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의 결과에서, 응급실

내원 손상환자 중 자해·자살 환자 비율은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고 폭력·타살은 4.5%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자해·자살 환자 중 56.9%는 이전 시도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1회(11.2%) 또는 2회 이상(19.7%)의 경험이 있는 환자도 많았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 활동, 의료기관 운영 등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손상환자 발생 및 응급의료기관 이용에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번 결과보고회가 2020년에 발생한 손상 환자의 특성과 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토의하고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손상으로 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 마련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 대한 상세한 통계는 2022년 1월에 발간할 「2020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며, 관련 통계 및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사업 지침 등은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성지아기자

## “저신용자도 최대300만원대출”... 경기극저신용대출 17일까지 올해 마지막 접수

**2021 경기극저신용대출**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신청기간: 2021.12.9(목) ~ 12.17(금)

지원내용:
 

- 신청대상: 300만원 한도
- 신청기간: 300만원 한도
- 신청유기: 300만원 한도
- 상환유기: 300만원 한도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면서, 저신용자 NICE 724점 이하 또는 KCB 655점 이하 (가구신용등급 평균 이하)

신청장소: 2021.12.9(목) ~ 12.17(금) 경기도 시민금융복지지원센터(온라인 상담 예약 필수)

문의사항: (서울)정부지원 1661-3144 (서울)대안은행(서울)대안은행 1588-4413 (경기)경기지원 홈페이지 http://ggwf.gg.go.kr

정보 신용점수는 724점 이하 또는 KCB신용점수는 655점 이하인 만 19세 이상이다. 과거 신용등급 기준으로 7등급 이하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불법채권 추심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불법사금융센터 신고 접수 후 상담 결과에 따라 제공한다.

신용위기 청년대출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6개월 장기연체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6개월 이상인 만 39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생계형 위기자 대출은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도민이 대상이다.

대출 희망자는 12월 17일까지 경기도 시민금융복지센터 사전 예약을 통해 채무 상담 후 접수하면 된다. 사전 예약, 대출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661-3144, 1588-4413)나 경기복지재단 누리집(ggwf.gg.go.kr)을 확인하면 된다.

올해 3월 시작된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11월 말 기준 총 2만 4,509명을 대상으로 416억1,200만원의 대출금을 지원했다.

도는 이달 중으로 극저신용대출 우수사례를 엮은 '함께 걸어요. 극저신용대출 사례집'을 발간해 시·군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금융 사업을 개발해 누구나 누리는 경기도형 포용적 시민금융복지 실현과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문 대통령 “종전선언, 비핵화 첫걸음...국제사회 함께해 주길”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막...한국, 아시아 최초로 개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7일 저녁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개최식을 갖고 8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유엔 평화·안보 관련 최대 회의로, 올해 회의는 우리나라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 주최해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라는 주제 아래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이틀간 ▲평화의 지속화 ▲파트너십·훈련·역량 강화 ▲임무수행능력 ▲민간인 보호 및 안전 등 4개의 의제별 논의를 통해 평화유지활동(PKO) 강화를 모색하고, 회원국들은 관련 공약 발표를 이어간다.

개회식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유엔 평화활동국 사무차장, 유엔 운영전략책임자 사무차장, 유엔 운영지원국 사무차장, 공동의장국 주한외교관, 평화유지활동 파병 유경험자 등이 현장에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환영사를 전했으며,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도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은 평화와 재건을 위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더욱 적극적으로 힘을 보탬 것”이라며 효과적이고 안전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평화유지군의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어 “한국이 2024년~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해 평화 구축과 분쟁예방 활동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으로써 종전선언에 국제사회가 함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평화유지구상(A4P) 및 평화유지구상 플러스(A4P+)를 통해 보다 강력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평화유지활동 구축에 대한 유엔의 노력을 소개했다.

또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 등 장관회의 주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항공자산 기여 ▲파트너십 구축 ▲책임성 강화 ▲여성 참여 확대 등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회원국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정 장관과 서 장관도 각각 개회사를 통해 환영사와 유엔 평화유지

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반도에서 정전 상태를 종식하고 보다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평화유지활동의 효율화를 위한 유엔의 노력을 지지하며, 회원국들의 기여 공약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유엔의 미래 청사진인 스마트캡트 모델 제시와 최우선 소요인 헬기 공여 등 실질적 기여를 통해 국제평화 활동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평화유지 장관회의 주요 테마인 헬기 공여 지원활동의 기술과 의료역량 구축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Seoul Initiative on Technology and Medical Capacity Building in Peacekeeping)’를 발표했다.

서울 이니셔티브는 평화유지활동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지원이 필요한 우선 분야 9개항을 제시, 회원국들의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 분야에서는 ▲스마트캡트 구축 및 시범사업 ▲기술 활용을 위한 훈련 ▲전문가 인력 제공 ▲재정-병력기여국 간 파트너십을, 의료 분야에서는 ▲임무단 의무지원계획 수립 ▲평화유지요원의 의료역량 강화 ▲부상자 의무후송(CASEVAC) ▲정신건강 전략 마련 ▲원격의료 등 기술 확대 등 총 9개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평화유지군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과 의료역량을 갖추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임을 소개하고, 서울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여를 당부했다.

최광수기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새로운\_자치\_분권의\_시작**

**#광고\_경기도\_의회\_신청사**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politics

정치 I

2 문화매일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 충청남도의회, '청년문제, 청년에게서 직접 듣는다'

충청남도의회가 청년들이 도전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듣는다.

도의회는 제2기 의정모니터 청년분과를 신설하고 6일 국제회관에서 청년분과 모니터요원 6명을 위촉했다.

청년실업과 고용 문제는 개인만의 일이 아닌 전 사회적 이슈로, 도의회는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제안과 조례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정모니터 청년분과 위촉은 청년들이 느끼는 사회문제에 대한 청년층의 목소리를 직접 수용한다는 점에서 청년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1부에서 '의정모니터 제안방법' 교육이 이뤄지고, 2부 위촉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충남도의회가 나아갈 방향과 의정모니터 활동 개선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김명선 의장은 "의정모니터 청년분과는 세대를 대표하는 분과로서, 충남의 청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견을 제안하고 건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상황에도 참석해준 의정모니터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최정근기자

### 화성시의회 의장, '국민행복민원실' 현판식 참석하여 재인증 축하

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과 기획행정위원회 관광용 위원장 및 박연숙 의원은 7일 화성시청 민원동 앞에서 열린 '2021년 국민행복민원실 현판식'에 참석하여 인증을 축하하였다.

'국민행복민원실'은 2014년부터 도입·운영되기 시작한 민원실 표준모델이다. 전국의 광역시도, 지자체, 교육청,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민원실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인증기간은 3년으로 화성시청 민원실은 2018년 신규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인증 현판을 수여 받았고, 이번에 재인증을 신청하여 행정안전부와 외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인증되었다.

이번에 경기도내 신규인증 받은 지자체는 양주시와 광주시이며, 재인증을 받은 지자체는 화성시와 파주시이다. 심사지표는 공간 및 서비스 점수와 체험 및 만족도 점수를 합하여 선정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원유민 의장은 "민원실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이용하는 공간으로 화성시의 얼굴이다. '국민행복민원실'의 재인증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국민행복민원실'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시설과 서비스로 화성시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힘써달라. 또한 시청 민원실을 본보기로 삼아 화성시 전역의 읍면동 민원실이 개선되어 시민들이 언제든 부담 없이 찾을 수 있고,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 노웅래 · 양기대 국회의원, '남북고속철도 건설 차기정부 과제 세미나' 개최

내년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마포갑·양기대(경기광명을)) 국회의원은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와 공동으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고속철도 건설 차기정부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대선을 90일 가량 앞둔 가운데 양정숙 국회의원, 나희승 코레일 신임 사장, 최기주 전 대도시관광역교통위원장, 진장원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장 등 정·관·학계 인사 및 철도·물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기 정부에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대표인 노웅래 국회의원은 "남북고속철도 연결은 차기 정부의 대표적인 과제이자, 대한민국이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첫 걸음"이라며 "의원연구단체 차원의 심도있는 연구뿐 아니라, 민주연구원 등 당 차원의 검토를 통해 대선 공약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기대 국회의원은 "부동산 문제 등과 같은 현안과 남북관계 교착으로 한반도 관련 대선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남북고속철도 건설은 먼나라 일처럼 생각하는 듯하다"며 "남북고속철



도가 건설되면 남북간 평화와 공동번영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어 "차기 정부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한다면 경제문제, 일자리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범정부적인 남북고속철도 기획단을 설치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장원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경부고속철도가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의 공간을 개편하는 혁명적 방아쇠(trigger)였다면, 남북고속철도(ETX)는 향후 50년 이상 동아시아의 공간을 개편할 혁명적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남북고속철도 건설 추진단 설치를 촉구했다.

최만식기자

토론자로 나선 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센터장 역시 "남북고속철도 건설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다면서 "해당 사업은 5~10년 소요되는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15~25조원 규모 재원은 매년 국가예산의 0.3~0.7% 수준에 불과하고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면 0.1% 안팎이 소요되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경태 국립통일교육원 교수는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직속 남북고속철도 건설 추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북경제제재 해제 전이라도 남북한이 함께 사전준비를 해 차기 정부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보충질문

용인시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답변을 진행했다. 이날 백근기 시장은 김운봉, 이창식, 전자영, 윤환, 남홍숙, 박민석, 장정순, 박남숙, 유진선, 김희영, 이진규, 이재남, 이은경, 윤원균, 김진석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했다.

시정답변 후 김운봉, 전자영, 윤환, 박남숙 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했다.

보충질문에서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규제가 가지는 가치를 인정하는 '규제 합리화'를 언급하며 남사, 이동읍의 친환경개발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현실, 향후 진행 방향에 관련한 시정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친환경 개발의 진수공간으로서의 가치 유지는 남사와 이동뿐만 아니라 용인시 전체에 적용되어도 무방하며, 하천수질 정화화 상수원보호구역은 별

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용인시 탄전을 예로 들며, 굳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모든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흐름은 보편적인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하천의 수질 개량과 유지는 오염총량제에 의한 각종 수질규제 관련 법령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 30일 체결한 평택호 유역 상생 협약 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대해 미온적이고 적극적인이지 못한 우리 시의 태도를 지적하며, 평택시에만 수질개선 예산 1조를 투자하는 내용에 대하여 질책했다.

이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및 규제지역 토지 가치평가 산정 용역 부분의 토지평가재산손실금을 언급하며, 경기도나 평택시에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한 이동, 남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분쟁조정위원회 중재 요청이나 대책 논의 등에 대하여 유감을 표했다.

조혜영기자

## 임오경 의원, 골프장 그린피 인상 해법은 공급 확대,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 국민을 위한 진정한 '골프대중화 정책' 수립될 수 있도록 입법개정 추진할 것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김승원의원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한국체육진흥공단 주관한 '골프 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발제를 진행한 김상훈 박사(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는 대중제골프장 그린피 상승 원인은 대체제가 부재했기 때문이라며, 저렴한 그린피에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골프장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재광 교수(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준회원제 ▲대중제 ▲공공형태로 개편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을 활용해 공공골프장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지은 박사(한국재정학회)는 회원모집 여부만으로 회원제와 대중제로 분류되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상업형 골프장 ▲비회원제 상업형 골프장 ▲대중형 골프장 세 가지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새로운 대중형 골프장은 카드사용료 등을 포함한 이용료가 10만~12만원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영 상근부회장(대중골프장협

회)은 그린피 상승 등의 문제는 결국 수요와 공급 때문이라며, 수요증대에 따른 공공성 확보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 대표(행복골프클럽)는 공급을 늘리기보다 있는 곳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박노승 골프칼럼니스트는 체육공단에서 운영하는 에폴리안 골프장 같은 모델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환 상근부회장(한국골프장경영협회)은 공공골프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현행 골프장 세급체계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어 징벌적 중과세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천범 소장(한국레저산업연구소)은 분류체계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은 "지난 20년간 정부에서 추진해 온 골프대중화 정책은 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었다"며, "골프가 생활스포츠로 변모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인만큼 국민을 위한 진정한 '골프대중화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 허태정 시장, 충청권 상생발전 새로운 패러다임 강조

### 광역철도·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동기획세션 참석...

허태정 대전시장은 8일 충남도서관에서 개최된 '충청의 꿈과 희망, 충청의 미래를 묻다' 공동기획세션 개최를 축하하고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충청권 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이번 공동기획세션은 충청권 지방자치분권의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

하기위해 마련됐다. 공동기획세션은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기초발전과 함께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 등을 주제로 충청권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허태정 대전시장 개막 축사에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자, 본격적인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첫걸

음을 내딛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며, 충청권 상생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려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방은행 설립, 광역철도망 구축,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과 같은 지역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며 충청권이 글로벌 혁신성장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광호 의원, '신안 반월·박지도 퍼플섬'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해야



전라남도의회 정광호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2)은 지난 2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제24차 총회에서 '신안군 안좌면 반월·박지도 퍼플섬'이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올해 최초로 실시된 유엔세계관광기구의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Best Tourism Village)' 선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홍보, 관광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세계의 각 마을을 평가해 인

증해주는 사업이다. 그런 만큼 국가간 더 열띤 경쟁을 펼쳤다.

'세계관광우수마을'은 모두 3등급으로 나뉘는데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인증하는 '최우수관광마을(World Label)', 다음이 '최우수관광마을 개선 프로그램(Upgrade Program)', 그 다음이 '최우수관광마을 네트워크(World Network)'이다.

신안의 퍼플섬 반월·박지도는 이 가운데 제일 높은 등급인 '최우수관광마을(World Label)'로 선정됐다. 이날 75개국 170개 마을이 본선

에 진출해 경합을 펼쳤으나, 신안군 보랏빛 섬이 마을 문화·자연자원, 관광 잠재성, 경제·사회·환경 지속 가능성 등 모두 9개 분야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신안 퍼플섬은 그동안 세계적인 언론사 CNN과 폭스뉴스, 홍콩의 유명 여행잡지, 독일 위성TV 등에 소개되면서 세계의 명소로도 급부상했다. CNN은 '사진작가들의 꿈의 섬'이라고 평가받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연중 보랏빛으로 물든 아름다운 신안군 안좌면 반월·박지도가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최대관광자원인 섬 발전과 육성을 위해 '가고 싶은 섬' 지원 확대, '일반인 반값 여객선' 도입 등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엔세계관광기구'는 1925년의 국제관광연맹(IUOTO)을 개편해 1975년에 설립된 국제연합(UN) 전문기구로, 관광 진흥과 개발, 관광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총 155개 회원국과 6개 준회원국, 400여 개 지부가 가입돼 있다.

김영안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dalyculture.kr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트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 / 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r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치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계 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 집 국 : 02)2612-2959		
팩 스 :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 DDP 220m 외벽에 빛으로 수놓는 초현실 세계 '서울라이트' 17일 개막

DDP 외벽 전면 초현실 세계로 초대하는 '자각몽 - 다섯가지 색' 미디어아트

세계 최대 비정형 건축물 DDP의 220m 외벽 전면에 초현실 세계가 펼쳐진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한 메타버스가 새로운 활동 무대로 떠오른 것처럼, DDP 외벽에 메타버스 공간을 구현해 서울과 역동하는 생명력, 그리고 전 세계에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화려한 빛과 미디어, 음악으로 선보인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경돈, 이하 재단)은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펼쳐지는 대형 라이트쇼인 '서울라이트'를 17일(금) 19시 개막한다. 이날부터 내년 1월2일(일)까지 하루 4차례씩(매일 19시~22시 정각) 서울의 밤을 아름다운 빛으로 수놓는다.

'서울라이트'는 DDP 외벽 전면에 영상을 투사해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주는 미디어퍼사드 축제다. '19년 12월 말 첫 선을 보인 '서울라이트'는 100만 명이 넘는 발걸음을 모으며 서울 시 대표 겨울 축제이자 DDP 일대의 새로운 명물로 떠올랐다. 올 봄에는 아름다운 꽃과 새 생명이 움트는 자

연을 담은 작품 '희망의 빛'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관람을 위해 DDP 홈페이지(www.ddp.or.kr)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지정된 관람석에서 회당 99명으로 관람인원을 한정한다. 예약은 10일부터 가능하다.

재단은 미디어아트로 구현된 가상 세계에서 코로나로 지친 서울시민과 전 세계인을 위로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인간과 기술이 조화를 이뤄 함께 전진하며 나아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3회를 맞는 올해 '서울라이트'의 주제는 '다시 뛰는 서울, 함께 하는 DDP'다. 메인 작품은 미디어아티스트이자 서울대 교수인 박재성 작가의 '자각몽 - 다섯가지 색'이다.

DDP 외벽에 구현한 메타버스 공간에 ▲블랙(빛이 없는 우주) ▲그린(생명체로서의 서울) ▲화이트(메타버스라는 초현실적 생태계) ▲레드(메타버스 안의 에너지와 생명력) ▲

블루(기술과 인간의 진화) 다섯 가지 색을 테마로한 다양한 기법의 미디어아트를 12분에 걸쳐 선보인다.

작가는 이번 작품을 메타버스와 미디어아트의 융합장르인 '메타바이오아트'로 새롭게 규정했다.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을 통해 코로나를 계기로 다시금 주목받는 생명의 가치를 표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작품 제작 과정에 AI기술이 접목됐다. 작가가 인문학적 시와 이미지를 학습시킨 AI가 이것을 재해석해 새로운 영상으로 만들어냈다.

작가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 로봇, 서울, DDP를 생물이 아니라 할 수 있을까?' 같은 다양한 화두를 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올해는 DDP 외벽뿐 아니라 DDP의 뒤편의 공원도 '서울라이트'의 무대가 된다. 공원의 슬로프를 따라 2m 높이의 라이팅 트리 100개가 설치돼 '빛의 정원'으로 재탄생, 17일(금)부터 만날 수 있다.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이 서로를 격

려하고 희망을 나누자는 의미로 나무 주변에서 박수를 치거나 희망의 메시지를 외치면 센서가 이를 감지, 마치 나무가 생명을 얻은 듯 좌우로 움직이며 다양한 컬러로 주변을 밝힌다.

빛의 정원은 서울디자인재단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가 협업해 조성되며, '아멕스와 함께하는 DDP 빛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상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DDP의 새로운 야경 명소이자 대표 포토스팟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빛의 정원 전체가 파란빛으로 빛나는 아멕스 모먼트와 기념품 증정 행사 등 아멕스와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18일에는 'DDP포럼\_서울라이트'가 DDP에서 비대면으로 개최된다. 2021 서울라이트 메인작가 박재성과 뇌과학자인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안무가 차진엽이 모더레이터로 참여해 '메타바이오아트와 몸'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포럼은 DDP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돼 누구나

볼 수 있다.

포럼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을 경험한 인류가 메타버스를 구축하며 물리 공간의 한계를 극복한 기술과 동시에 몸을 움직이며 현실적인 공간에서 살아가야 하는 한계에 대해 논한다. 또한 올해 서울라이트를 준비한 작가들의 뒷이야기와 220미터의 거대한 캔버스에 작품을 펼치기 위해 겪었던 시행착오와 기술적 노하우는 추후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로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라이트'의 후속 프로그램으로는 국내 최고의 스트릿댄서이자 안무가인 리아킴의 파워넘치는 댄스를 모션데이터로 변환한 미디어아트 '빅 무브 with Lia KIM'가 내년 1월~2월 중순 찾아온다.

박진배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라이트사무국장은 "서울라이트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round-up

종합

문화매일 3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 서초구, 청렴도 평가서 자치구 최고 등급 선정

서초구가 전국 자치구 중 최고의 청렴 도시로 뽑혔다.

서울 서초구는 9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중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도 평가는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민원 처리한 경험이 있는 국민, 소속 직원, 전문가 등이 응답한 '부패경험', '부패인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을 종합한 결과다.

구는 이번 평가에서 전체 기관 평균(8.27점) 대비 0.35점이 높은 8.62점을 얻어 전체 5등급 중 2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전국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된다. 특히 소속 직원들이 스스로 조직을 평가한 내부 청렴도와 공공기관 민원인 등이 평가한 외부 청렴도에서도 모두 2등급을 받아 직원, 주민, 민원인 등 모두에게 서초구의 청렴함을 인정받은 셈이다. 또, 부패사건이 없어 감점도 없었다.

구 관계자는 "이 같은 성과는 구가 올 한해를 '서초가 청렴으로 거듭나는 해'로 삼고, 1,500명 직원들과 주민들이 청렴을 자연스러운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간 구는 이색적인 청렴 정책을 추진해 최상위 수준의 청렴도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구는 감사담당관이 공사 현장을 찾아가 시공업체와 발주부서 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청렴 트라이앵글'을 총 89회 운영하여 공사업체 불만 등으로 인한 부조리 요인을 원천 차단했다.

또, 구는 도급공사비 1억 이상 증액된 공사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위원들이 참여해 설계변경 사유 및 변경물량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설계변경 자문위원회'를 총 5회 운영, 4,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설계변경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번 아니라 구는 공사 관리감독·인허가·보조금 지원 등의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불만사항, 친절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청렴콜'을 운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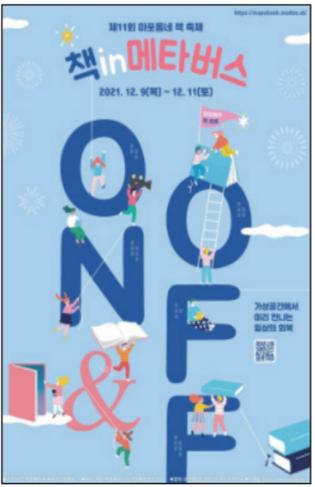
이를 통해 해당부서에 피드백하고 적극적인 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구는 ▲도급액 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 업체 대상으로 '청렴문자 발송', ▲공사 착공시 안내 간판에 '청렴안내판' 부착, ▲직원들의 조직 내 의견을 수렴하는 '청렴 소리함' 등 다양한 청렴 정책을 추진했다.

전정욱 서초구청장 권한대행은 "청렴은 공직자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자 의무"라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구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도시 서초'를 만들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 마포구, 제11회 마포동네책축제 '책in메타버스' 개최



마포구가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제11회 마포동네책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책in메타버스'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는 이번 동네책축제는 마포동네책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축제 기간 동안 마포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지역 내 15개 도서관에 북큐레이션 코너를 마련했다.

북큐레이션은 북(Book)과 큐레이션(Curation)의 합성어로 특정한 주제에 맞는 책을 선별해 이해를 돕는 보조자료 및 소품과 함께 독

자에게 책을 소개하는 일종의 테마 전시로서 각 도서관마다 특색 있는 북큐레이션을 만나 볼 수 있다.

▶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상시 프로그램

구는 지난해 마포동네책축제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데 이어 올해는 책과 메타버스를 접목시켜 언제 어디서든 가상의 공간에 접속해 책을 즐길 수 있게 했다.

마포구립서강도서관은 메타버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미래 시나리오 2022, 메타버스로 만나다'라는 시나리오 특강을, (사)어린이도서관의 마포지회와 마포공동체라디오에서는 '책 잡히는 라디오 독감' 영상을 마련했으며, 마포중앙도서관은 페이퍼아트를 도서관과 메타버스에서 관람할 수 있게 전시했다.

▶ 사전 접수를 통해 만나는 유명 작가 강연

마포구립서강도서관에서는 9일 저녁 7시 긍정연 작가가 '피자 위에 까만거? 맞아요, 그 올리브'라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마포구립푸르메도서관은 11일 오후 2시 허교범 아동문학가를 초빙해 '스무 고개 탐정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준다.

신청은 참여를 원하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에서 준비한 'Ho Ho Ho Jingle Game'과 지역 내 작은도서관이 합동으로 기획한 '우리가 사랑하는 동화' 등의 강연을 책축제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

▶ '다시 듣고 보고 가다' 릴레이 특강

마포중앙도서관은 MZ세대의 책 축제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전문성 있는 강사를 초빙해 축제 기간 동안 책 축제 홈페이지와 메타버스에서 공연·여행·영화 분야의 특강을 제공한다.

축제 첫날인 9일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으로 유명한 김성호 영화감독의 특강을 시작으로, 10일에는 음악 크리에이터 송사비의 '클래식 북콘서트'와 김정인 영화감독과의 만남을 진행하고, 축제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김소담 여행작가의 '북도크'와 영화평론가 라이너의 '영화평론특강'으로 릴레이 강연이 마무리 된다.

▶ 현지 가이드가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랜선 여행'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여행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여행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해의 현지 가이드가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책장 넘겨 떠날까? 랜선 투어'는 마포구민에게만 제공되며, 축제기간 3일 동안 각각 45명씩 ▲마카오 ▲비엔나 로망스 ▲스페인 중 한 곳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책축제라고 해서 책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와 접목한 행사를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며, "이번 축제로 연말에 책으로 마음의 양식을 쌓고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 코로나 속 희망의 빛 반짝 강동구 길동 '기리울 빛 축제' 성황



### 8일 달남 어린이공원에서 점등식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열려

강동구가 '2021. 기리울 빛 축제'를 개최한다.

길동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열린 이 행사는 8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3주에 걸쳐 달남어린이공원에서 개최되는 '기리울 빛 축제'는 형형색색의 조명등으로 연출해 연말 겨울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예정이다.

축제의 첫째 날, 점등식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재능기부 공연을 시작으로 많은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진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화려한 점등 퍼포먼스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동네 한편의 일사적 공간이 힐링과 불거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바뀌는 순간, 코로나로 힘들었던 한해를 잘 마무리한 주민 모두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하는 시간이 되었다.

가족이나 연인 혹은 소중한 사람들과 축제를 추억할 수 있도록 포토존도 설치했다.테마가 있는 네온사인, 은하수 조형과 반짝이는 눈꽃형 루미나리에 등 다채로운 조명시설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연말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많은 주민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

상대 점등식 당일은 100인 미만으로 출입을 최소화하였고, 축제기간 내내 방역 전담요원이 발열체크와 방문자 확인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장을 방문한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북소리 시장으로 유입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점등시간은 일몰 후부터 밤 11시까지로, 주변 거주민들의 야간 소음관련 민원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행사를 주최한 최현수 주민자치회장은 "코로나19로 올해는 행사를 축소해 진행하지만,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축제를 기획해 그간 만나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이 모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행사에 참석해 "빛 축제를 관람하며 연말연시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며 "이 축제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힘을 얻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꿈꾸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규석/기자

## 성동구,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 성동구는 오는 17일까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지역 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사업비 70억여원을 투입하여 1,76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3개 유형으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공익형 사업 1,587명, 아이돌봄도우미 등 사회서비스형 140명, 커피음료 제조 판매 등 시장형 40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공익활동형의 경우 만 65세 기초연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장형은 만 60세 이상,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사회서비스

형과 시장형 중 일부 사업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정부부처 및 지자체 일자리 참여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성동구 어르신은 12월 17일까지 신분증 지참 후 성동구 관내 동 주민센터와 7개 수행기관(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성수종합사회복지관,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성동희망나눔,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인정액, 세대주 형태, 참여경력, 활동역량 등을 고려한 선발 기준표에 의해 고득점자 순으로 참

여자를 선발하게 되며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참여 어르신들의 근무시간은 공익활동형의 경우 주 3일, 1일 3시간(월 30시간 이상)으로 27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기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또는 대한노인회성동구지회 등 7개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인오 성동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소득 보장과 더불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 은평구, 2021년 2기분 자동차세 79억원 부과

서울 은평구는 올해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6만여 건에 대해 약 79억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자동차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은평구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

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달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CD/ATM기 포함),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이택스 홈페이지, STAX(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앱), ARS,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조상순/기자

### 강화군, 2022년 농산물 우량종자 신청부터

강화군이 2022년도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정부 보급종 종자를 신청받는다.

벼 보급종은 오는 15일까지 읍·면 및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보급종은 국립종자원에서 생산된 삼광, 추청, 운광, 진달, 새일미, 새누리, 미품, 해답쌀, 동진쌀 등 9개 품종 173톤이 보급된다. 공급 가격은 내년 1월중에 결정되며, 내년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당 지역농협을 통하여 신청한 농업인에게 공급된다.

특히, 벼 보급종의 경우 종자의 이중 소독을 방지하기 위해 전량 미소독 종자 상태로 공급함에 따라, 종자검염 병해충 예방을 위해 반드시 운탕처리와 약제소독을 해야 한다.

옥수수 보급종은 오는 20일까지 찰옥수수(미백2호, 흑점2호, 미흑찰), 종실사료용(드립옥, 감일옥), 팝콘용(오류팝콘) 6개 품종에 대해 접수받는다. 공급가격은 찰옥수수 26,000원/kg, 종실사료용 21,000원/2kg, 팝콘용 35,000원/kg이다.

감자 보급종은 오는 31일까지 접수받아, 수미, 하령, 서흥, 두백 4품종 69톤을 공급한다. 감자 종자는 미소독종자로 20kg 포장단위로 공급되고 공급가격은 수미·하령·서흥은 32,960원, 두백 38,880원이다. 군 관계자는 “보급종은 체계적인 기술지도와 엄격한 포장관리로 생산한 종자이므로 발아율이 높고 생육이 좋아 다수확을 할 수 있다”며 “농업인들께서 기한 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 부천시, 2022년 어린이 겨울방학테마프로그램 운영

부천시 심곡도서관에서 2022년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의 독서 습관을 함양하고 창의력 개발에 도움을 주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1월중 운영한다.

유아 6세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총 42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종의 프로그램을 온라인(부천시립도서관 Zoom 화상회의의 계정)으로 진행한다.

먼저, 「조물조물 그림책이야기」는 유아 6~7세를 대상으로 한다. '새해', '눈', '나눔', '사랑' 등을 주제로 하는 구연동화를 듣고 클레이를 이용하여 이야기의 주제를 표현함으로써 동화의 교훈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그림책으로 만나는 역사 북아트」는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국사의 주요 사건이나 인물들에 대한 역사 그림책을 함께 읽고 「나만의 역사책」을 만들며 역사적 사고력을 기르는 시간으로 기획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 코딩게임」은 언플러그드 보드게임 및 엔트리(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한 코딩교육으로 대상은 초등학교 3~6학년 어린이이다. 컴퓨터를 활용해 주어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예정이다.

윤용민기자

## 경기도 공공버스, 코로나에도 서비스지표 상승 '뚜렷'.. 공공성 강화 입증

경기도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 중인 노선 입찰제 기반 준공영제 광역버스 '경기도 공공버스'가 각종 서비스 지표에서 이전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입찰 경쟁으로 선정된 민간 운송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등 이전 방식보다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운송사업 수익성 저하나 코로나19 같은 외부환경 변화에도 감차·폐선 등 피해 없이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실제 팬데믹이 선포된 지난해 3월, 도 광역버스의 가동대수/운행횟수는 전년 동기 837대/3,990회에서 762대/3,395회로 떨어졌으나, 공공버스 시행 1년째인 올해 3월에는 965대/4,380대로 15%/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2~8월 전국 16개 시도의 버스 수송 인원이 작년 동기보다 29% 줄고, 매출액도 24% 준 것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또한 공공버스 전환에 따라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되며, 여객별 등 관련 규정 준수 등 '안전운행'을 유도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동일 노선을 기준으로 지난해 민영제 운행 기간과 올해 공공버스 운행 기간을 비교할 시, 과징금 건수는 87%(47건→6건) 줄었고, 과태료 부과 건수는 40%(234건→140건)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추세는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도 나타났다. 동일 노선에 대해 민영제와 공공버스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비교·분석한 결과, 총점은 1.2점 상승했고 '차내 쾌적성', '안전수칙 준수' 점수가 각각 4%, 0.6%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 공공버스가 가진 '경쟁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영구 면허가 아닌 한정적 운영권 부여'라

는 특성으로 인해, 버스업체들이 자발적인 서비스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앞으로도 소외지역 노선 배려, 비수익 노선 유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신규노선 개척 등 승객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도 공공버스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허남석 경기도 교통국장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 공공버스를 도입해 시행한 지 2년 만에 민영제,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에 비해 제도적 우수성이 검증 됐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인 대중교통 서비스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공버스는 2020년 3월 16개 노선 120대를 시작으로 현재 220개 노선, 2,078대(전체 광역버스의 90%)까지 확대해 운영 중이다(2021년 12월 1일 기준).

조혜영기자

## 안양산업진흥원, '안양시 소공인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안양산업진흥원은 7일 진흥원 건물 1층에서 소공인 산업 육성과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안양시 '소공인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안양시 소공인지원센터는 안양시 관양동 일대가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도비, 시비 총 27억원을 지원받아 문을 열게 됐다.

안양산업진흥원 본원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소공인지원센터는 관양

동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내에 소재한 전자부품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공동인프라 기반을 마련했다. 네트워크 분석기, 오실로스코프, 항공항습챔버 등 9종 10점의 공용장비를 도입하였고, 소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비롯해 글로벌회의실,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다목적실)도 갖추고 있다.

안양시 소공인지원센터에서는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물류유반비 지

원사업, 인종획득 지원사업, 컨텐츠 제작 지원사업 등 소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소공인 스마트 활용화 교육 등 소공인 기술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날 개소식 행사에는 최태호 안양시장장을 비롯하여, 최우규 안양시의회 의장, 김은희 총무경제위원장, 배해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회장, 송재열 여성경제인연합회장, 조성진 안양시 관양지구 소공인협의회장 등 관양동 집적지구 50개사 소공인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태호 안양시장장은 "안양시 소공인지원센터가 안양시 전자부품 소공인들의 든든한 지원 허브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소공인들의 역량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조 지원 시책사업을 홍보하고 지역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센터 이용과 공용장비 사용, 지원사업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안양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최정부기자

## 인천사서원, '함께하는 좋은 돌봄' 인천시민이 함께 한다

인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좋은 돌봄 실천 다짐 선포식 마련 6가지 실천 선언 약속해

"좋은 돌봄, 좋은 서비스, 좋은 일터,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요!"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지난 8일 오후 웨스트베스트 로얄호텔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함께 '좋은 돌봄 실천 다짐' 행사를 열고 함께 긍정적인 돌봄 문화를 만들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영상으로 실천 다짐을 약속하는 한편 유해숙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 김예순 요양보호사 대표, 박성희 돌봄 서비스 이용자 가족 대표, 김만희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장이 현장에서 좋은 돌봄 실천 선언을 했다. 실시간으로 진행된 인천사서원 유튜브 방송에는 100여 명이 참여했다.

실천 선언은 '좋은 돌봄, 좋은 서비스, 좋은 일터, 존중받는 일터, 행복한 인천, 사회적 약속' 6가지다. 좋은 돌봄이 꽃을 피우도록 우리 사회가 힘을 모으자는 다짐이 담겼다.

'좋은 돌봄'은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뜻하고 '좋은 서비스'는 돌봄 서비스 이용자 존중, '좋은 일터'는 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



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여기에 장기요양요원을 귀하게 여기는 '존중받는 일터'를 더한다.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이용자와 돌봄 노동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든다.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등 참여 기관 대표자들은 실천 선언이 쓰여있는 종이 불꽃을 하나씩 들고 차곡차곡 쌓으며 이 다짐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김종남기자

## 평택시, 비행기 없이 떠나는 세계여행

2021 평택 세계 문화주간 성료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이 주관한 '2021 평택세계문화주간'이 지난 7일 러시아문화주간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배다리도서관 및 배다리공원 일대에서 진행된 세계문화주간은 6월 캐나다(6.26.~7.1.)를 시작으로 7월에 체코(7.6.~7.11.), 10월에 미국(10.1.~10.5.), 11월에 남아공(11.16.~11.20.), 12월에 러시아(12.2.~12.7.) 문화주간을 추진하며 총 5개국 나라가 각각 대사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외교에 기여하는 쾌거를 거뒀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어려운 가운데 평택에서 세계여행을 떠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 '2021 평택세계문화주간'은 다양한 세계의 문화를 수용하고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해 거주 시민 및 외국인인 문화 다양성을 체험한 행사로 평가 받고 있다.

"다양한 문화와 대자연은 품은 캐나다를 경험하다"를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 캐나다 문화주간은, '오로라와 로키산맥, 그리고 도깨비의 나라 캐나다'를 소개한 권오철 작가의 강연, 대사부인이 소개하는 온라인 쿠킹 클래스, 캐나다 6.25 참전 사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중세의 숨결을 간직한 동화의 나라, 체코를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체코문화주간은, 판소리와 체코 전통 인형극이 만난 마리오네트 인형극 '수궁기', 체코 만화 100년 전시, 체코관광청 한국지사장과 함께한 '지속 가능한 관광의 미래'강연, 평택시립 오케스트라 공연단에 의한 개막축하공연, 체코클래식 음악여행 등 풍성한 행사가 마련되어 거주 내외국인들은 체코의 문화를 만끽했다.

"멀지만 가까운 친구, 미국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미국문화주간은, 한미 우정의 날 기념콘서트(9.24.)를 시작으로 온라인 추수감사절 쿠킹 클래스, 미국 문화 체험 키트, 한국전쟁과 미군 사진전 및 미국 명소 포토존 등을 마련해, 미

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다양한 인종 무지개의 나라"를 주제로 열린 남아공문화주간은, 관내 남아공 전문 레스토랑과 연계하여 진행된 남아공 음식 체험 및 온라인 쿠킹 클래스, 실재주 지역문화 전문가 및 여행작가에 의한 '남아공의 역사, 문화와 관광 컨텐츠 강연', 남아공 비즈니스 공예 체험, 남아공 6.25 참전 사진전, 사파리 포토존 등 남아공의 분위기를 느끼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가장 큰 나라"를 주제로 열린 러시아문화주간은, 개막식의 러시아 공관 학생 및 전통 악기 공연단 '트로이카'의 축하공연, 샌드아트로 떠나는 '개구리 공주'공연, 러시아 셰프에게 배우는 전통 디저트 만들기 체험,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사진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특히, 러시아 문학 낭송과 오케스트라 연주가 결합된 문학의 밤 행사는 낭송 및 시립 오케스트라의 조화로운 구성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만들었다.

문학의 밤 행사에서 안톤 체홉의 4막으로 구성된 희곡 작품 '벚꽃 동산'의 일부를 낭독한 정장선 시장은 "문학과 음악으로 융합된 러시아의 문화를 한 번에 아우르는 문학의 밤 행사를 통해 품격 있는 공연을 가까이서 접함으로써 내년에도 시민들이 평택에서 세계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전하며,

"또한 2021 평택세계문화주간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마련, 거주 내·외국인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다. 2022년도에는 평택세계문화주간을 더욱 알차게 구성하여 국가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며 행사를 통해 그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도에는 평택시와의 우호 국가 및 참여 희망 국가 등을 고려해 폴란드, 중국, 영국 등을 검토 중이다

양시현기자

## 안성시 드림스타트, '올바른 양육학교' 프로그램 진행

안성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4일 드림스타트 아동의 양육자 70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나이에 따라 두 개 조로 나누어 '올바른 양육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바른 양육학교'는 양육자를 대상으로 양육 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 태도 강화와 개별 연락을 통해 양육 태도 코칭을 받아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에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직장 생활을 하는 양육자들을 배려해 주말에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교육에 참여한 양육자들에게 연말 기념 케이크 만들기 키트를 제공해, 개선된 양육 태도로 아동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양육자는 "아이의 육아와 훈육에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감사님께 감사드린다"며 "기회



가 또 생긴다면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안성시 드림스타트는 관내 모든 아동의 동등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자 만0세(임산부)부터 만12세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4개 분야(▲신체·건강 ▲정서·행동 ▲인지·언어 ▲부모·가족)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조혜영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 나눔과 따뜻함은 모두를 위한 백신!



안양 '사랑의 온도탑' 제막. 8일 범계역 광장. 1% 적립 시 1도 상승

희망2022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8일 안양 범계역 광장에서 열렸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최대호 안양시장, 최우규 안양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최은숙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구재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공동위원장, 일반 기부자 등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 했다. '사랑의 온도탑'은 모금액 8억원을 목표로 내년 1월말까지 범계역 광장을 불 밝히며, 사랑의 손길을 맞이한다. 8억 원의 1%인 8백만 원이 적립될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은 1도씩 상승하게 된다. 지난해 사랑의 온도탑에 모금된 금액은 목표액 8억원의 128%인 10억3천151만3천원,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눔의 정

신을 남겼다. 제막식에서는 또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중부지사, 대릉테크노타운 15차, 안양지역건축사회,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 더테라스, '노뎀' 등의 관계자들이 함께하며 성금을 기부했다. 특히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달 지역 대학특강으로 받은 수강료를 사랑의 온도탑 성금으로 기탁하기도 했다. "아직 코로나의 여파가 식지 않고 있지만 사랑의 온도탑에 희망을 담으며 반드시 종결될 거라 믿는다. 나눔과 따뜻함이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이 될 것이다. 시민여러분들의 온정이 사랑의 온도탑을 펴낼 줄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정부기자

## 광명도시공사, 2022년 고객 모니터링단 모집

광명도시공사는 고객 및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고객 중심 경영의 실현을 위해 '2022년 고객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객 모니터링단은 공사에서 관리·운영하는 사업장(광명동굴,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공영주차장, 메도리얼파크, 교통약자지원센터 등)의 ▲고객 응대 친절도 ▲시설·환경의 편리성, 쾌적성, 안전성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사 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2021년 12월 13일부터 12월 26일까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모니터링단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윤용민기자

## 화성시농어업회의소, 8일 공식 출범

8일, 컨벤션 더 힐에서 출범식 개최... 5년 만에 결실



화성시농어업회의소가 8일 컨벤션 더 힐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6년 농식품부의 '농어업회의소 공모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설립추진단 구성, 조례 제정, 발기인회 개최를 거쳐 올해 2월 비대면 창립총회를 치르고 드디어 5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원유민 화성시의장, 송욱주 국회의원, 김인순 경기도의원, 임정룡·최정환·김홍성·조오순 화성시의원, 농업인단체장, 농어업회의소 회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농어업회의소의 역할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김홍규 청와대 행정관의 특강이 있었으며, 임인성 농어업회의소 회장 취임식과 축하공연,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과 단체, 농·축·수산업동조합 등 총 1,481명이 참여하며, ▲농어업인의견수렴 ▲농업정책 제안 ▲농정홍보 ▲민관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어업회의소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고 농업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인성 농어업회의소 회장은 "민관 협치의 농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적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농어업회의소는 화성시 종합경기타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양시현기자

## 경기도, "의정부~연천 평화로가 살아야 경원축이 산다"

경기연구원, '경기북부 발전의 단초, 평화로를 살리자!' 발간

의정부에서 연천을 통과하는 '평화로'에 대한 보행로·자전거 도로 개설 등 개선사업을 추진해 경원축의 주된 개발축이자 상징축으로 삼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발전의 단초, 평화로를 살리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평화로는 경원권 4개 시·군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을 잇는 총연장 65km의 국도 3호선이다. 경원권 4개 시·군은 택지 및 도시개발로 지난 20년간 인구가 58만8,000여명(2000년)에서 82만여 명(2020년)으로 약 1.4배 증가했고, 교통량 또한 거주인구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경원권 핵심 간선도로였던 평화로는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주 구간 개통 등으로 자동차 도로로서 기능이 약해졌다. 또한 군사 규제에 따라 지역 먹거리와 연결되는 개발은 억제되고, 난개발 위주의 열악한 도시 경관이 조성됐다.

조혜영기자

이에 연구원은 평화로를 단순 자동차 도로가 아닌 지역을 서로 연계하는 핵심축으로 바꿔 수도권 균형 개발의 대안으로 삼자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경기북부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가로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전거·녹지 네트워크 구축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가로시설물, 기반시설 정비 ▲지역 축제·이벤트를 활용한 가로 활성화 도모 등을 제안했다. 강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두천 북측부터 연천 북측 구간은 대부분 인도가 없어 지역주민의 안전과 인접 자원을 연계할 보행로 개설 및 연결이 시급하다. 주변 자연·관광자원을 활용한 자전거 도로 설치도 부수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가로 정비의 주체가 시·군이지만 유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중심의 사업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경기도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

하남시는 '하남시 환경교육센터'가 경기도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 승인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 경기도에서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달 2일 현지실사를 거쳐 7일자로 최종 '하남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받았다. 앞서 시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하남시 환경교육진흥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6월 '환

경교육도시 하남'선포식을 했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7월 1일 환경교육센터를 개관했다. 개관 후 시민을 대상으로 10종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환경문화제 '지구야, 안녕!'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정향미 환경정책과장은 "하남시 환경교육센터는 지속가능한 환경

박강호기자

## 용인시 백군기 시장, 용인중앙시장 청년상인들과 간담회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등 건의사항 청취

백군기 용인시장은 8일 처인구 김량장동 중앙시장 상인회사무실 5층 대회의실에서 중앙시장에 입점해 있는 청년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나누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김진건 중앙시장 상인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5명과 김철정년회장 등 청년상인 10여명이 참석했다. 청년 상인들은 코로나19로 전통시장 매출 타격이 극심했다고 호소하며 청년 상인 육성을 위한 지원과 젊은 연령층의 전통시장 방문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이에 백 시장은 "전통성을 강조하기만 해선 젊은 인구를 끌어들이고 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다양한 불거



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둔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내년에는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 소상공인 대상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과 특례보증료 지원, 점포환경개선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용인중앙시

장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해 김량장동 123-4번지 제2공영주차장에 1290㎡ 규모의 주차면 35면을 갖춘 노외주차장을 증설한 바 있다. 내년에는 국도비 포함 2억6800만 원을 투입해 중앙시장 내 335개 점포에 화재 방지를 위한 알리시시스템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조혜영기자

## 양평군 옥천면, 새이레 기독교 교인 후원

쌀 10kg 30포 취약계층을 위해 전달

지난 8일 옥천면 용천리 소재 새이레 기독교에서 옥천면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10kg 쌀 30포를 옥천면사무소 복지팀에 전달했다. 새이레 기독교회는 새이레 교회 부설 교육기관으로 2017년 양평군과 취약계층 아동지원에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바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후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번 연말에는 더욱 심해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축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섰다. 전달받은 쌀은 옥천면 내 취약계층 30가구에 소중하게 전달될 예정이다. 송미경 새이레 기독교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들게 생활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후원품을 지원해 작은 도움을 준 것 같아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코로나19 상

황이 양호해지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나눔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김옥옥 옥천면장은 "지역을 위해 봉사해 주시는 새이레 기독교회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 이번 기부가 겨울철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윤기자



문화매일 5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 평택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존식 사업 '보존식 왜? 언제? 어떻게? Vol.3' 진행

평택시에서는 평택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해 진행된 보존식 특화사업을 지난 달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존식 특화사업은 평택시와 센터가 2019년부터 올바른 보존식 관리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집단급식소와 소규모 급식소(21~49인) 86개소가 참여 완료해 더 안전한 집단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집단급식시설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의 경우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을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사업 진행 시 올바른 보존식 관리를 위해 보존식 용기, 꽃이식 기록일지표를 지원하고 적극적인 보존식 관련 교육을 86개소의 어린이급식소에서 보존식 관리 적합률이 향상됐음을 확인했다. 또한, 올바른 보존식 보관과 관리를 통해 어린이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 시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식중독 대응력을 높였다. 김남곤 센터장(국세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 교수)은 "영유아보육법 상 보존식 관리 기준이 강화되어 21~49인 소규모 급식소 또한 보존식 보관 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보존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올바른 보존식 보관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식중독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센터에서는 어린이 급식소의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특화사업을 계획해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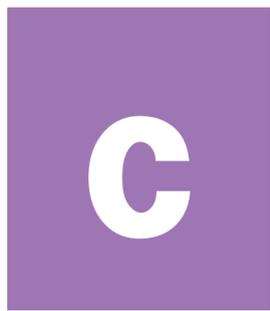
양시현기자

##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랑킨 숯불양념구이치킨으로부터 치킨 300마리 기탁받아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프랑킨숯불구이양념치킨(대표 강경진)으로부터 치킨 300마리를 기탁받았다고 9일 밝혔다. 전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강경진 대표와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프랑킨숯불구이양념치킨은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력해 3개월 동안 100마리의 치킨을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해 지원하게 된다.

강경진 대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치킨 뿐 아니라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은경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capital area  
수도권

6 문화매일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10~11일 미래사회준비와기후환경변화대응을위한포럼·캠프

LAB COURSES	[참가신청]	[선택프로그램]
<b>1차</b> 2021. 12.11(토) 장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안성) 1층 신청기간: 09:00~16:00	<b>2차</b> 21. 11.29(일)~12.05(일) 장소: 호평초등학교(안성) 1층 신청기간: 11.29(일)~12.05(일)	<b>3차</b> 2021. 12.11(토) 장소: 호평초등학교(안성) 1층 신청기간: 11.29(일)~12.05(일)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이 오는 10일과 11일에 미래사회 준비와 기후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포럼과 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포럼과 캠프는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에 학습결손을 줄이고 사회성과 심리·정서 발달 회복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10일에는 여주 한강문화원에서 청소년의회 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포럼을 한다.

이 포럼에서는 적정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청소년 역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1일에는 여주 가남초, 성남 상탑초, 경기도융합교육원 북부교육관

에서 초등학생 250여 명을 대상으로 환경·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메이커 캠프를 운영한다.

이 캠프에서는 우리지역 생태를 살피는 환경, 프로그램과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활동, 학생이 상상하는 미술·정보기술·사진 등을 제작하는 활동 등을 진행한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이태현 원장은 "이번 포럼과 캠프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실천한 사례 등을 함께 나누고 배우는 자리"라며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윤화섭안산시장,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서 특별방역대책 보고



안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

### 다문화 특구 내 집중센터 운영·찾아가는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대책 추진

안산시는 8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에서 시가 추진 중인 방역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는 각 부처 및 17개 시도, 전국 기초지자체가 참여한 영상회의로, 코로나19 확산되는 가운데 중대본 및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조치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부처별 대응 및 기초 지자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병상확보 ▲역학조사 ▲재택치료 ▲추가집중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화섭 시장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외국인들의 접근성이 좋은 다문화 특구 내 집중센터를 설치해 외국인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데 행정력을 집중했다"며 시가 추진 중인 방역대책을 보고했다.

특히 산업단지 내 찾아가는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해 외국인에게 검사편의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10월 한 달 확진자의 40% 이상을 차지하던 외국인 확진자 비율이 11월 마지막 주부터는 10%대로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공무원, 경찰, 특전사, 한시인력 등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역학조사에 대응하고

있으며, 역학조사 대응 전담인력을 현재 2개반 35명에서 2개반 55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역학조사관도 5명 더 총원해 신속한 역학조사 및 업무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시 방역대책을 설명했다.

시는 3차 접종 및 미접종자 접종률 제고 방안으로 25개 각 동마다 국장급 책임담당관제 및 전담팀을 도입했다.

윤 시장은 "책임담당관제 및 전담팀 운영을 통해 접종 안내와 예약을 지원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13개국 외국인 공동체 대표로 구성된 '백신서포터즈'로 지원할 것이다"라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들이 불편 없이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또 코로나19 확진 시 재택치료 원칙에 맞춘 방안도 추진해간다고 밝혔다.

체계적인 재택치료자 관리를 위해 기존 재택치료팀 전담인력에 5명을 보강하고, 응급환자 관리팀을 신설해 24시간 근무 및 응급대응체계를 확립했고, 확진자 확대추이에 따라 전담인력을 단계별로 확충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이번 확대 대책에 필요한 예산, 협조사항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후속 대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최정부기자

### 2021년 이천시 농업진흥사업 종합평가회

이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7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업진흥분야 종합평가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종합평가회는 농업진흥과에서 주관하여 사업관계자, 시범사업 대상자, 관련공무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기획, 인력육성, 생활지원 등 농촌사회분야 농업진흥사업의 추진 결과보고, 우수사례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사업 평가 및 토의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올해 농업진흥분야 사업예산 58억9천만 원으로 농업인교육 및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단체육성, 농촌관광, 귀농귀촌사업을 위주로 추진하였다. 주요성과로는 생활지원분야에서는 작목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안전편의장비 보급을 통해 농업 노동 부담 경감 및 생산성을 증대하였고,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의 핵심 주제인 농촌지도사회의 역량강화 및 농촌사회 리더 교육을 통해 농업인력을 육성하였다. 인력육성분야에서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농업생명대학의 운영 등 교육을 통한 농업기술을 전파하고, 영농과제활동을 통해 4-H회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총 63명의 청년농업인 4-H회원 네트워크를 조직하였으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통해 청년농업인 리더를 양성하였다. 김경전 농업진흥과장은 "이번 평가회를 통해 농업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방안과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농업활동과 행복한 미래농업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인천N방송, 다양한 미디어 지원 사업 중점 홍보 나서

### '2021 인천 국제 1인 미디어 페스티벌' 참가

인천광역시는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에서 운영하는 인천N방송이 오는 11일과 1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2021 인천 국제 1인 미디어 페스티벌'에 참가한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인천N방송은 매년 개최하는 시민참여 UCC 공모전 '영상왕 콘테스트'를 비롯해, 1인 크리에이터 그룹 '인천N크리에이터', 시민을 위한 영상 제작공간인

'인천MCN센터' 등 다양한 미디어 지원 사업을 중점 홍보한다.

아울러 연계사업인 '1인 방송콘텐츠 제작자 양성 교육' 수료생에게 개별부스를 제공해 개인 채널과 콘텐츠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문객에게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 국제 1인 미디어 페스티벌 홈페이지(iisf.kr) 또는 인천N방송 홈페이지(incheonntv.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아 시 문화콘텐츠과장은 "이번 행사에서 시민참여형 영상 공유 플랫폼인 인천N방송을 홍보하고 이를 계기로 시민들의 1인 미디어 콘텐츠 참여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광명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노력 평가 31개 시·군 중 1위



광명시는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경인일보가 공동 주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노력 평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에 선정되어 8일 상장을 받았다.

광명시청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추연옥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중소기업회장과 배상록 경인일보 사장이 참석해 광명시에 상장을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경인일보는 광명시 관내 제조업 50개, 비제조업 51개 등 총 101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정보제공, ▲문제 해결에서의 적극성, ▲절차의

편리성,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6개 분야 평가를 실시했으며, 광명시는 5점 만점에 3.04점을 받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위로 선정됐다.

추연옥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중소기업회장은 "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광명시가 솔선수범하여 많은 체감정책을 추진하여 좋은 평가가 나온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워드코로나 시대에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소기업중앙회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배상록 경인일보 사장은 "이 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선정한 것이라 더 큰 의미가 있다. 1위 선정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수상소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께서 광명시 정책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조용호 광명상공회의소 회장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박승원 시장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대한상공회의소 감사패를 전달했다. 그리고 이항기 광명전통시장 조합 이사장, 나상준 소상공인 연합회장, 박재철 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이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했다.

광명시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골목상권 지원, 소상공인 청년지원단 운영 등 워드코로나 시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역량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천시 기업환경 개선사업 선정 중소기업 현장 방문 격려



이천시는 8일 기업환경 개선사업 선정 업체인 이천시 대월면 소재 ㈜아그로비즈를 방문해 기업예를 청취하고 기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그로비즈는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체로 22년도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바닥 예폭시 도장 공사 사업비를 지원받아 노동자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황대진 대표이사는 "(주)아그로비즈는 정부 공인연구소를 보유한 농업전문기업으로 농업분야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현장 중심 연구로 더 좋은 농업 솔루션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공헌하는 회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품의 수출 확대 및 시장 개척 등과 관련하여 시의 관심과 배려를 요청했다"

업체인 이천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직접 기업 생산현장에서 와서 보니 기업 스스로가 오랜 기간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해 온 모습이 보인다. 기업 스스로 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중소기업체들의 여건상 시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환경에 대해선 기술 개발, 디자인 개발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1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은 작업환경, 노동환경,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총 11개소에 대해 시비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2년도에도 25개 사업장에 대해 4억 7천만 원을 확대 지원할 예정으로, 업체인 이천시장은 연말에 사업장을 격려 방문할 계획이다.

이성욱기자

### 수원시,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 재난에 빈틈없이 대비한다

수원시가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7~17일 11일간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021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인명피해 우려 지역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수원시청 시민안전과 및 4개 구청·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자체 점검과 경기도와 함께 하는 합동 점검으로 진행된다.

수원시 자체 점검은 오는 17일까지 신속한 설치를 위한 전진기지 8개소, 상승 결빙 구간 25개소, 노후주택 등 적설(쌓여 있는 눈) 취약 구조물 10개소 등 43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 전진기지) 시설제·시설장비 보관 상태, 시설장비 누수·부식 여부 등 ▲(상승 결빙 구간)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결빙 대비 안전시설 유무, 현장책임자 지정 여부 등 ▲(적설 취약 구조물) 지붕층 마감재 손상 여부, 건물 누수 발생 여부 등이다. 수원시는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물 등을 발견하면 시설물 보수 등 조치를 하고, 사유 시설은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요청해 신속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와의 합동 점검은 지난 7일 수원시 내 상승결빙구간 등 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완료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빈틈 없는 안전 점검을 추진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시흥시, '따라따라 프로젝트 in 시흥' 전시 열어

시흥시가 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2021 모랫골 만지작스튜디오 프로젝트 2021 따라따라 프로젝트 in 시흥 전시'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한다.

모랫골 만지작스튜디오 본연의 '창작' 기능과 예술가와 시민의 '점점지대'를 형성하려는 의도로 초대된 '따라따라 프로젝트'를 2개월 간 진행한 결과로 이번 전시가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색면추상(마크 로스코), 제도비판(게릴라 걸스), 퍼포먼스(벨리 도르너), 사진(존 발데사리), 행위예술(이건용) 등 주요 현대미술가의 작품을 직접 따라서 창작해보는 현대미술 이론과 창작실습으로, 전시를 통해 영상, 사진, 회화, 설치 등 30여 점 이상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다섯 명의 시민창작자는 작가의 방법론(발상, 구현하기 위한 계획, 작업동기, 소재 선택, 의도 등)을 예민한 시선으로 되짚으며, 몸으로 수행한 새로운 감각과 향유가 담긴 작품을 선보인다. 때문에 이 작품들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설렘과 "아무나 예술가가 될 수 없다"는 두려움 사이를 줄타며 동네사람들과 함께했던 여정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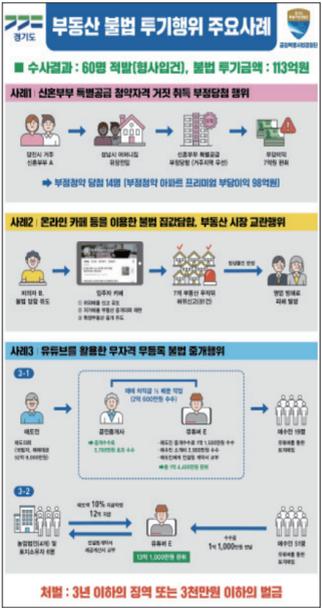
이 여정에 참여했던 한 시민은 "살면서 이렇게 주변을 탐색하고, 한 걸음씩을 위해 다른 발상을 마음껏 펼칠 적이 있었던가 싶다"면서 "이 전시가 프로젝트의 끝이 아니라, 남은 인생에서 하하씩, 해보지 못한 작품을 따라하며 주변을 돌아보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프로젝트를 기획한 임은빈 담당자는 "현대미술은 아무리 따라 해도 모방이 되지 않지만, 오히려 창작이란 나이를 공유하거나 새로운 표현 문화로 향유할 때,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가 결국 삶에 대한 이해로 향해 간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작품 너머, 작가의 시간을 따라갈 때, 일상과 동떨어진 고상한 현대미술이 아닌 당대의 현실로부터 출발했고, 여전히 현실을 품고 있는 거울로서 가까워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모랫골 만지작스튜디오에서 예술가와 시민의 접점을 만들 수 있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순수예술에 대한 이해와 향유의 방식을 넓힐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정부기자

경기도 특사경, 위장전입으로 위례 아파트 청약.  
유투브 운영하면서 부동산 불법 중개



B씨는 9개의 부동산중개업소만 이용해 달라며 특정업소에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했다.

같은 아파트 입주예정자 C씨 등 43명은 포털사이트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7곳의 매물이 정상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81회에 걸쳐 허위매물로 신고해 정당한 중개행위를 방해했다. 특히, 한 달 동안 34건의 신고를 당한 D부동산은 매물 회수, 광고 제한, 신규 매물 등록 금지 등의 제재를 받아 생계에 지장을 입을 정도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에서는 유투브를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도 적발됐다. 토지 관련 유명 유투버 E씨는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 당초 의뢰 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한 경우 차이분은 1/2로 나누기로 약정했다. 이후 E씨는 화성시 일원 등 토지 16필지를 거래대금 52억 원에 중개하고 매매대금 차액금 2억 원 중 절반은 공인중개사와 나눠 가지는 등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억4천만 원을 가로챘고 공인중개사들도 5,7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E씨는 4개 농업법인과 6명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화성시 일원의 토지 71필지를 매도할 경우 수수료 10%를 받기로 계약하고 유투브를 보고 땅을 찾던 매수자 51명에게 매매대금 142억 원에 토지를 중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3억 원을 받아챘었다.

특히, E씨는 무등록·무자격 중개로 총 19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팔아 약 14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무자격 중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컨설팅 비용으로 처리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고 현혹해 부동산컨설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을 하거나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단장은 “현재 부동산시장 전반적으로 불법행위를 통한 투기가 성행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청약, 집값담합,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군위군, 불법도장시설 특별단속 등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노력

군위군은 쾌적하고 깨끗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불법도장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유해화학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분진과 악취를 발생해 군민건강을 침해하고 대기환경오염을 증가시키는 불법도장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이번 단속에서 그동안 미신고 불법도장시설을 운영해온 업체 3곳을 적발해 군위경찰서에 고발(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하고 미신고 시설에 대해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7일 폐쇄 명령을 하였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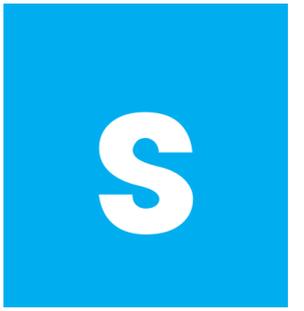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5㎡ 이상이거나 동력 2.25kW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들은 수도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곳에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방지시설도 없이 공장부지 야외에서 대규모 철구조물에 대한 도장을 일삼아 무방비로 대기오염물질이 외

부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위군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불시점검 등을 통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다량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별단속과 감시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동호기자



society  
사회

문화매일 7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 전주시, 초등학교 앞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확대

시, 올해 5억800만 원 투입해 초등학교 21곳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완료

전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전주시는 올해 총사업비 5억800만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21곳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으며,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총 61개소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초등학교 21곳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전주시 초등학교 75곳 중 61곳에 카메라 설치를 완료한 시는 내년 말까지 나머지 초등학교 14곳에 대해서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시는 아직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14곳의 경우 이동형 단속차량과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배치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 운

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로, 주말·공휴일도 예외 없이 단속이 이뤄진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 원이며, 승합자동차는 13만 원이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강화로 일부 학교 주변 원룸이나 주택가 주민들의 주차불편 발생이 예상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이해하고 정책 시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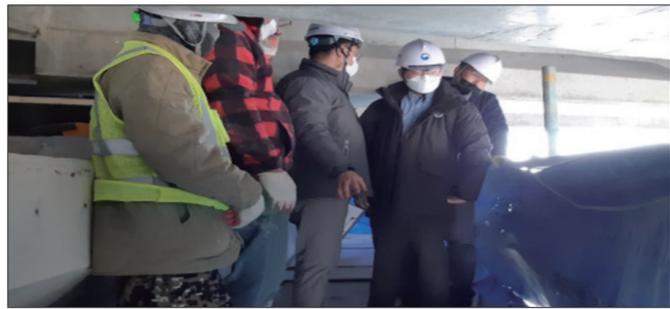
김승일기자

## 경상남도-고용노동청창원지청-안전보건공단, 지자체 발주 건설현장 합동점검

경상남도는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고용노동청창원지청, 안전보건공단과 건설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지자체 발주공사 현장의 사망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50억 미만 지자체(지방공기업 포함) 발주 건설현장을 점검했다.

유해·위험작업 및 위험 기계·기구 등 재해발생의 근원이 되는 기인물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추락·끼임 위험 방지조치를 확인하고 옥외작업 금지, 휴식, 따뜻한 물 제공 등 겨울철 한랭질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아울러 건설공사장 코로나19 방역 현황도 병행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계단실 안전난간 미설치,



비계난간 미설치, 비계 벽이 미설치, 마스크 미착용 등이 주로 지적되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경남도는 건설현장 안전과 관련한 지자체 발주 건설현장 합동점검

을 1년에 상·하반기 2번 실시하고, 건설현장 수시 점검도 병행하면서 건설현장 사망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광남/대기자

김노이기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도민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회가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 area

## 영남 I

8 문화매일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 대구 북구청, 대구시 환경관리업무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대구 북구청은 2021년도 대구시 주관 구·군 환경관리업무 평가에서 2019년, 2020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대구시에서 구·군의 환경정책, 기후대기, 수질개선 등 환경관리업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4개 분야 27개 세부지표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북구청은 제도개선 노력, 실내공기질 관리, 소음관리,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추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수질오염총량 및 비점오염원 관리 등 평가항목 전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발암성 물질인 석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석면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100% 달성하였으며,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유용미생물(EM) 배양액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호평이 이어져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북구청은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도 4그룹(배출업소 수 251~500개소)에서 3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한 결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환경보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호기자

### 2021년 구미시립도서관 문화강좌 작품전시회 개최

구미시립중앙도서관에서는 상·하반기 문화강좌 수강생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작품을 전시하는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작품전시회에서는 데생&수채화, 사진영상, 서예 등 7개 강좌, 150여 작품을 전시하며 인동, 상모정수도서관의 경우에는 전시기간에 캘리그라피 체험강좌도 운영한다.

이선임 구미시립중앙도서관장은 "이번 전시회는 문화강좌 수강생들이 1년동안 배운 실력을 보여주는 자리로서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문화강좌를 축소 운영하여 예전에 비해 작품수가 적어 아쉽지만 다들 수준 높은 작품을 출품하였으니 많은 시민들이 관람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한편 구미시립도서관 문화강좌는 올해 20개 강좌를 운영하여 670여명이 수강하였으며 매년 상·하반기 12주씩 진행, 상반기 강좌는 3월, 하반기 강좌는 9월에 개강한다. 또한 종강시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대흐름을 반영하는 시민 맞춤형 강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봉금기자

# 경북도 미래전략연구지원단, 정책과제 최종보고회 개최

경상북도는 8일 오후 도청 화랑실에서 '경상북도 미래전략 연구지원단' 정책과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북도 미래전략연구지원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선도과제 발굴을 위해 이석희 도 정책자문관을 필두로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싱크탱크이다.

올해 총 7차례 회의(21.3~10월)를 개최해 경북이 정책트렌드를 선도할 48개 메가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과제 간 융·복합 심층연구를 통해 최종 6개의 분과별 전략과제를 발굴해 그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보고회는 그간 연구지원단 활동을 통해 발굴된 주요과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분과별 심화 전략과제를 발표하는 한편, 향후 사업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발표한 연구지원단의 분과별 심화 전략과제의 주요 내용은 6대 과제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소멸방지를 위한 경북형 구두마루 구현방안은 법·제도 정비를 토대로 한 농지, 주택, 소득, 교육의 기본적인 구두마루 마련으로 지역소멸 방지와 지역균형 패러다임 도모하는 전략이다.

두 번째 경북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실증은 경북지역메타버스산업진흥원(가칭) 구축을 통한 경북지역의 교육·산업·문화관광 관련 산업 육성 구심점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 지능형 반도체 융합부품 클러스터 조성은 지능형 반도체 융합부품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 기업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이다.

네 번째 경북형 농촌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대책은 농촌에 방치돼 있는 미활용 폐교를 활용한 이주노동자 주거 공간 및 안정적인 농촌 인력 확보를 통한 농촌 인력난 해소 방안이다.

다섯 번째 경북 문화관광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은 통합스마트관광

계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환동해 블루관광, 산림체험관광 등을 통한 공황경제권 활성화이다.

끝으로, 2050 동해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은 동해 해산식물을 이용한 탄소 고정능 확대 연구 및 경북형 블루카본 기반 하이브리드 소재 개발 등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부합한 어촌 수역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북도는 이날 발표된 전략과제에 대해 관계부서와 실현가능성 및 사업화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전문가 TF를 구성해 구체화 한 후 연구영역으로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민석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은 "혁신적인 도정 역량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전략 발굴 연구를 위해 노력해주시신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라며, "연구지원단 활동을 통해 발굴된 과제는 도·소·실·군 및 시·군에 공유해 다양한 시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봉금기자

## 포항시민의 따뜻한 온정, 외국인근로자 패딩나눔 온도 뜨겁다

### 포항시 새마을회, 외국인근로자 겨울패딩 나눔 행사 오는 11일 개최



포항시 새마을회 오는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포항실내체육관에서 타국에서 고생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겨울 패딩나눔 행사를 개최한다.

새마을회는 이번 행사를 위해 11월 17일부터 12월 3일까지 약 2주간 기관·단체·개인을 대상으로 패딩을 모집했으며, 시민들의 따뜻한 온정에 힘입어 기존 목표였던 2,000벌을 훨씬 웃도는 3,000여벌을 모집했다.

특히 모집 과정에서 남구 연일읍에 위치한 문수사에서 새 겨울패딩 70벌을 기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김노이기자

또한 시민들은 장롱에 있던 패딩을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기꺼이 내놓았으며, 각 기관·단체 및 기업 등에서도 자발적으로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상해 포항시새마을회장은 "시민들의 도움으로 인해 패딩을 수월하게 모을 수 있었다"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우리 지역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 새마을회는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아래 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현중기자

## 울릉군,재미교포홍일송홍보대사로 위촉

### 울릉군, 재미교포 홍일송 홍보대사로 위촉



홍일송씨는 전 미국 버지니아 한인회장으로서 미국 하원으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과 버지니아 주 '동해 병기법안'을 이끌어 내는 등 동해 표기와 독도지킴이 운동에 앞장섰으며, 동해 표기 추진위원장, 문화유산국민신탁 미주본부장, 문화재 찾기 한민족네트워크 미주본부장 등을 맡아 왔다.

홍일송씨는 "홍보대사로 위촉된 홍일송 씨가 대외적으로 보여주셨던 동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은 앞으로 전 세계적 홍보와 지속적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 울릉도·독도가 주체가 되는 각종 축제와 행사 등에 홍보대사를 적극 초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울릉도·독도가 알려지기를 바란다." 라고 하였다.

홍일송씨는 "홍보대사로 위촉된 홍일송 씨가 대외적으로 보여주셨던 동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은 앞으로 전 세계적 홍보와 지속적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 울릉도·독도가 주체가 되는 각종 축제와 행사 등에 홍보대사를 적극 초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울릉도·독도가 알려지기를 바란다." 라고 하였다.

정현중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에 솟아오른 수성, 빛으로 행복을 수놓는다!!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제3회 수성빛예술제가 오는 12월 10일 개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성빛예술제는 내년 1월 8일까지 수성못 둘레 2천 미터 전역을 다채로운 빛예술 작품들로 수놓을 예정이다.

'행복수성, 빛으로 수놓는다'를 슬로건으로 사람과 소통, 예술과의 융합 그리고 공동체의 나눔과 행복을 핵심가치로 내세웠다.

시민예술축제로 위상을 높인 수성빛예술제는 빛예술학교, 5개의 마을공동체, 다문화공동체, 청년 작가들과 대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빛예술 작품을 만들었다. 이 작품들은 저마다의 희망 메시지를 담아 수성못 일대를 빛으로 환하게 밝힐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수성구의 '수성'을 상징하는 대형 미러볼이 전시되며, 지름 5.5m로 국내 최대 규모다. 이 미러볼 주위로 우주의 작은 행성과 위성들, '확보한 예산은 워드 코로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성장 동력'이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의 국비 확보 실적은 올해 초부터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및 국회에 사업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출 등 국비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최상길기자

지역 날인 31일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대표적인 체험 프로그램은 3차원 입체음향으로 영상을 감상해 볼 수 있는 이머시브 씨어터, 추운 겨울철 따뜻한 온기와 화려한 불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파이어가든, 150m의 빛 터널, 숲속 반딧불이 가든, 시간 터널, 수성 오로라, 빛의 여정 등이 준비되었다.

그리고 오는 24일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층 더 느낄 수 있게 상화동산 일대에 인공눈을 뿌려 관광객들에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선사할 예정이다.

수성빛예술제 기간 중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며,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경품 혜택을 줄 계획이다.

수성구와 수성문화재단은 이번 행사를 진행하며 주요 동선에서 발열체크, QR코드 출입, 문진표 작성 등을 실시한다. 현장 여건에 맞는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축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방역환경을 조성한다.

장동호기자

## 안동시, 신재생 에너지 보급으로 탄소중립 실현 "한발짝"

안동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와 에너지절약사업을 통해 탄소중립실현에 힘쓰고 있다.

시는 올해 11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자가용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비 1억 7천만 원으로 개인 주택에 자가용 태양광 3kW 설비로 184가구를 지원하였고, 마을회관, 경로당 등 8개소에 건물 지원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들여 태양광, 태양열 건조기를 보급하였다. 또한, 마을단위로 주택과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이중에너지

를 융합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7억 3천만 원을 투입해 253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유동물류센터 등 안동시 소유 공공건물 5개소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통해 자가용 태양광설비 약 1,500kW를 보급·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연간 이산화탄소 약 870톤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시는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저소득층 101세대에 고효율 LED조명등 교체 지원, 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66개소 지원, 노인복지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7개소 지원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효율개선 및 고효율기기 지원으로 에너지복지 실현에도 노력하고 있다.

시는 한 해 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절약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2021년 경상북도 에너지대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안동시는 "지역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에너지 자립화를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설비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덕자기자

## 경주시, 2022년도 역대 최대 국비 7389억원 확보

경주시가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7389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정부 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국비 7389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6967억원보다 422억원(6.1%) 늘어난 규모로, 지역구 김석기 국회의원과 함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덕분이다. 특히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영천 신경주 복선전철화 사업이 2022년 준공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국비가 전년도 대비 1114억원이 줄어든 상황 속에도 나온 결과여서 그 의미가 크다.

내년도 국비로 반영된 주요사업으로 지역교통 및 물류분야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407억원 ▲영천

~신경주 복선전철화 167억원 ▲영남-감포간 국도2차로 개량 134억원 ▲봉소~외동간 국도4차로 건설 297억원 ▲상구~효천 국도대체우회도로 248억원 ▲매전~건천간 국도개량 76억원 ▲강동~양간간 국지도 건설 2억원 ▲검단일반사업단지 진입도로 79억원 ▲평개3일반사업단지 진입도로 7억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 산업분야에는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 730억원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운영 133억원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실증 사업 57억원 ▲방사성폐기물정밀분석센터 설립 12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는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100억원 ▲경주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 40억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40억원 ▲차량용 접

단소재 성형가공기술고도화 기반조성 32억원 ▲탄소 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구축사업 33억원 등을 확보했다.

주낙영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비확보에 열정적으로 노력해준 김석기 의원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확보한 예산은 워드 코로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성장 동력이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의 국비 확보 실적은 올해 초부터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및 국회에 사업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출 등 국비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최상길기자

# 구인모 거창군수,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 밝혀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안정된 군정 속에 괄목할 만한 성과 거둬



구인모 거창군수는 6일 제26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로 제출하고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창군의 3대 난제를 말씀하게 해결하고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안정된 군정 속에, 더 큰 거창 도약을 위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주요 성과로 현재 45% 공정률로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구치소 신축과 대구·광주 간 달빛내륙철도사업, 남부우회도로사업 확정, 제2장포원 조성, 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 응곡전 생태하천 복원사업, 황강수변 여가문화공원 조성사업, 3천 400억 규모의 거창형 뉴딜사업 등 거창군의 미래를 준비하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꼽았다. 특히, 인구증가를 위해 LH 임대주택

사업과 전·입학생 장학금 및 기숙사비 지원 등 13개 시책 추진으로 지난해 7년 만에 도내 군부 2위 탈환 이후, 현재까지 2위를 굳건히 지켜냈다. 올 5월 정식 개장한 거창 장포원은 경남 지방1호 정원 지정에 이어 경남 대표 생태관광지로 지정되고, 감악산 웰니스 체력장, 거창항노화 힐링랜드 등은 지난해에 이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거듭났다. 이외에도 올 5월에 승강기 시험타워와 산업복합관 조성사업이 착공했으며, 200억 규모의 스마트 승강기 실증 플랫폼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고, 전통시장 복합 청년몰 '와락' 개장,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본격 도입, 농업인 월급제 시행 등 승강기 산업을 주축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했다. 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108면과 복합문화단지 주차장 117면, 주택가 소

규모 주차장 83면을 신규로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했으며, 주요 시가지 내 상습적인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회전교차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 등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공간조성을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시군 주요업무 합동 평가에서 3년 연속 수상, 2021년 국정목표 실천 우수지자체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51건 686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도 사업의 발판을 마련했다. 2022년 군정운영에 있어서는 민선 7기 공약사업 마무리,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확충, 미래 교육도시 환경조성, 자연이 숨 쉬는 문화관광 도시 조성, 경제의 근간인 도로망 구축, 농민이 중심이 되는 잘사는 농촌 조성, 탄소중립 2050 달성을 통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조성, 모두가 행복한 복지체계 구축,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도내 군부 인구 1위 달성 등 10개 분야 군정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더 큰 거창도약 군민행복시대를 완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먼저,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은 7개 분야 56건의 사업 중 46건의 사업은 완료했으며 현재 95%의 이행률을 보여 남은 임기동안 모든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확충을 위해 승강기 인재개발원 이전과 승강기 산업 진흥센터 유치, 수소충전소 구축사업과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업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며,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청년 일자

리 제공 등으로 활기찬 지역경제를 만든다. 인구 유입을 위해 2개소 24호의 공공임대 주택단지를 조성하며 청년 디딤돌 통장, 청년 결혼축하금,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이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들어간다. 자연이 숨 쉬는 문화와 관광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감악산 웰니스 체력장에 무장애 나눔길, 관광거점센터, 감악산 은하수 캠핑장을 조성하고 거창 장포원은 제2장포원을 조성으로 30여만 평 규모로 확대하여 국가정원과 세계 원예박람회 개최를 준비한다. 남부우회도로 조성사업은 내년도 착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광주~대구 간 달빛내륙철도와 진천~합천 구간 고속도로 사업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도심 교통체계 개편을 위해 회전교차로를 추가로 설치하여 교통체증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업에 ICT기술을 접목하여 3해타르 부지에 시범포 단지를 조성하며, 미래농업다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연면적 2천 제곱미터 규모의 미래 농업 복합교육관을 건립하고 12ha 규모의 방목생태축산 초지에 동물생태공원과 힐링 공간 등을 조성하여 새로운 6차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치유농업에도 도전한다. 이외에도 탄소중립 2050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시행, 태양광-태양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치매로부터 군민들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치매환자 가족 대상 숲속의 기억 단디 교실 운영과 치매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보듬 노노케어 행복한 동행 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모두가 행복한 복지체계를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맑은 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며 도시의 흥물인 장기 방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인구감소 최소화과 교육도시 환경조성으로 도내 군부 인구 1위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러한 군정 운영방향을 뒤받침하고 더 큰 거창 도약을 위한 새로운 걸음을 내딛기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 2022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7.9%, 515억 원이 증가한 7,019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거창군 본예산 역대 최고인 7천억 시대를 열었다. 구인모 군수는 "민선7기 도전과 성과로 거창군은 경남의 서북부 가장 자리에 있지만 문화·교육·행정은 경남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역대 지금과 같이 군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된 적이 없으며, 이제는 이러한 발판 위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도 군정이 차질 없이 역동적이고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800여 명의 공무원들과 힘을 모아 힘차게 달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병철/기자



area  
영남 II

문화매일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9

경남교육청,  
경남진로교육콘퍼런스  
품을 잇다



## 남해군, 2021 혁신·적극행정 道통합 경진대회 장려상

남해군은 지난 3일 경상남도 주관 '2021년 혁신·적극행정 道(道)통합 경진대회'에서 혁신분야 우수사례로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다양한 변화와 혁신 성과를 발굴·전파해 범도민 혁신 및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확실한 도민 체감 만족을 위하여 이번 대회를 개최했다. 1차 예선심사, 2차 경남도민 투표를 거친 16건에 대해 3차 본선 발표를 실시해 최종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남해군 청년혁신과 우수사례인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프로젝트로 인구유입을 실현하다'로 혁신분야 장려상을 수상했다. 남해군은 온라인 상설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인구유입 성과를 이루어 낸 사례다. 도시민, 학부모, 원주민들이 함께 협업해 청년공동체, 교육공동체, 지역공동체를 이루고 도시정년들에게 작업 및 생활공간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타 지자체의



다양한 온라인 사업과는 차별점이 있는 '혁신'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 발표한 남해군 청년안심필 청년과혁신 팀장은 "앞으로 남해군은 관계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 분야 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은 최근 경상남도 민

관협치 우수사례 공유대회에서 '떡거리에 공공성을 더한 남해산 행복밥상' 사례가 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이번 혁신 및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면서 민과관이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혁신 우수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영훈/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 지산학 협력으로 미래 청정에너지 "수소산업" 육성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늘(8일) 오후 2시 동아대학교를 찾아 대학·기업 관계자, 대학생들을 만나 '오픈캠퍼스 미팅'을 진행한다. '오픈캠퍼스 미팅'은 박 시장이 직접 대학을 방문하여 지·산·학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상생 발전 방안에 관해 토론회하는 행사로, 지난 6월 동의과학대를 시작으로 오늘 동아대학교까지 총 6번째 미팅이다. 오늘 행사에는 '새로운 부산, 지산학 협력을 통한 미래 신(新)산업 고도화 및 지식기반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박 시장을 비롯하여 동아대 이태우 총장, 초저온 저장탱크 제작 기업 ㈜크리코스 김대성 대표이사, 첨단반도체의약품 개발 기업 ㈜메디바 이요연씨가 김민석 대표이사,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업 ㈜디아이솔루션 남태우 대표이사, 제조업 매칭 플랫폼 기업 ㈜유디엠 유준일 대표이사, 영상편집 장비 제조 기업 ㈜인바이즈 이준석 대표이사, 동아대 학

생(강효림, 양기은, 전영수) 등이 참석한다. 박 시장은 동아대학교 승학 캠퍼스에서 수소 경제, 바이오메디컬, 인공지능(AI) 산업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열린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시는 지난 1일 글로벌 수소경제 그린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수소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4대 분야 15개 세부과제에 10년간 2조 4,031억 원을 투입하기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동아대학교는 사학의 대표 명문이며, 가덕신공항과 에코델타시티가 들어서고 2030부산국제박람회 개최는 서부산의 중심 대학으로 역할을 기대한다"라며, "벨트기술지원센터 등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한 동아대학교가 수소경제에 대응해 지산학 협력 대표 대학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영민/기자

## '경남교육 대전환'성과 공유와 향후 중점 과제 논의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통합지원센터 업무 처리 시스템 개선 방안 토의

경상남도교육청은 12월 7일 본청 강당에서 도교육청 부서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교육정책관리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추진된 「경남교육 대전환(4대 영역)」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학교 현장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학교통합지원센터 학교폭력업무 처리 시스템 개선과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폭력예방 정책 강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주제 안건인 「경남교육 대전환」의 1년 추진 성과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는 ▲빅데이터·AI플랫폼에 기반한 미래역량 중심의 교실수업 대전환 ▲학교 안팎 통합지원으로 선생님들 아이들 곁으로 보내는 학교행정의

대전환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의 대전환 ▲미래를 위한 생태거점 학교를 조성하는 생태환경교육의 대전환을 통해 변화된 경남교육의 모습을 면밀히 짚어보았다. 미흡한 부분은 제도적·행정적으로 보완하여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우리 사회의 변화와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해나가고자 모두 한 마음을 모았다. 이어진 토의에서는 18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학교통합지원센터의 학교폭력 업무 시스템 변화 필요성과 추진 방향 ▲기관별 역할 및 협업 시스템 구축 방안 ▲교육적 해결(관계회복) 중심의 내실 있는 학교장 자체해결제 운영 방안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

성 확보 방안 ▲학교의 학교폭력 업무 경감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그 외에도 체육예술건강과에서는 학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요령 등 방역지침과 관련한 내용을 점검하였고, 겨울방학 전 교육공공체의 안전을 위한 방역에 다 함께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와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 경남교육은 힘을 모아왔다. 교실수업, 학교행정, 교육복지, 생태환경교육의 대전환을 완성하여 경남이 미래교육을 함께 이루어 나가자."고 말했다. 윤광남/대기자



주식회사 비에스텍은 7일 합천군에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최한길 대표는 "어려운 시기지만 작은 나눔들이 한데 모여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게 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소중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식회사 비에스텍은 합천댐 수상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로 태양

광 발전설비와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시스템) 설치 및 시공을 주요사업으로 하며 친환경에너지 개발에 앞장서는 기업이다. 합천군은 기탁 받은 성금을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에 지원할 계획이다. 성금 기탁을 희망하는 분들은 합천군청 주민복지과나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장병철/기자

윤광남/대기자



area

호남 I

10

문화매일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 장수군 장애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숨은 마음 '챙겨드림' 프로그램 성황리 마무리

장수군 장애인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11월 한 달간 진행된 주부와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프로그램 '건강한 꿈 숨은 마음 '챙겨드림'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고 6일 밝혔다.

'건강한 꿈 숨은 마음 '챙겨드림'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쌓인 정서적 피로감을 줄이고, 건강한 정서함양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그림 그리기를 통한 심리상태 파악 및 상담 ▲질문에 답하기를 통한 심리상태 파악 ▲수공예 문예 체험 ▲시낭송 콘서트 등의 내용을 구성해 4주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주부, 청소년 소그룹을 각각 구성해 다양한 사례를 활용한 우울감 극복을 위한 상담과 직접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한 현재의 내적 심리를 심도 있게 파악해 참여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도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서늘한 마음은 많이 긴장된 상태였는데 상담이 진행되면서 나를 발견하는 계기가 돼 신기하고 뿌듯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주민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승오기자**

### 남원시,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을 소개합니다.

남원시는 7일 오전 9시 40분 시청 1층 민원실 입구에서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현판제막식을 가졌다. 국민행복민원실이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매년 전국 지자체, 시·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경험하는 민원실 내·외부 환경, 안전환경, 민원 행정 서비스 분야를 4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며 그 지위를 2024년 까지 3년간 인정하는 제도이다. 남원시는 지난 11월 24일 서울 금천구청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제12회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현판을 수상하고 이를 계기로 시민에게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각오를 새기는 의미로 현판제막식을 개최하였다. 제막식에는 이환주 남원시장, 양희재 남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장애인·다문화·여성·노인단체 및 주요 간부 공무원이 참석해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을 함께 축하했다. 남원시는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유아동반 민원을 위한 우선 배려창구 운영 ▲접차·음성 무인민원안내 키오스크 설치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보는 생활민원안내책자와 어르신을 위한 큰 글자로 보는 생활민원안내 책자 제작 ▲거동불편 민원인을 위한 도움벨 설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 상담 창구 운영 ▲민원서식 외국어 번역본 비치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원실 환경 조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을 발판으로 민원실이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닌 시민과 소통하는 친절행정 공간으로 거듭나는 국민이 행복한 민원실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 'KT WIZ 프로야구단', 익산에서 이웃 사랑나눔 실천

### 2천만원 상당 생활물품 어려운 세대에 전달

KT WIZ 프로야구단이 올해에도 익산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야구인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나눔 물품을 전달했다.

KT WIZ 프로야구단은 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익산시지원봉사센터(이사장 엄양섭)에 2천만원 상당의 나눔 물품을 전달했다.

기탁된 2천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익산시지원봉사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식료품과 물품이 익산지역의 15개 지역 아동센터와 읍면동 취약계층 및 독거어르신 125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지역아동센터에는 50만원 상당의 무선청소기, 에어프라이기, 전기그릴, 화장지, 키친타올, 읍면동 취약계층 및 독거 어르신에게는 10만원 상당의 누룽지, 참치캔, 라면, 간편식과 쌀, 화장지, 세제, 간장, 고추장 등의 물품이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KT WIZ 프로야구단은 익산 야구경기장을 훈련장으로 사용하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지역 야구단을 위



해 야구용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활물품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야구단으로 2021년 한국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KT WIZ 프로야구단 이승용단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고, 준비한 선물 꾸러미가 익산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연

말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익산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KT WIZ 프로야구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뜻깊은 나눔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 김제시, 희망2022 나눔캠페인 동참한 (주)곰소

### (주)곰소 저소득가정에 라면 400박스 기부

12월 8일 (주)곰소에서 관내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라면 400박스를 기부함으로써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 '희망2022 나눔캠페인'에 동참하였다. (주)곰소 김상호 대표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조

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박준배 김제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과 함께하는 정을 나눌 수 있도록 기부한 후원물품은 필요한 곳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상생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 전주시,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원도심 그린다

### 시, 7~11일 사회혁신전주와 옥성 등 원도심 일일서 '2021 원도심 컨퍼런스' 개최

전주 원도심을 문화예술과 청년 창업으로 가득한 활기 넘치는 공간이자 소통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머리를 맞댄다.

전주시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사회혁신전주와 옥성(완산구 현무1길 31-5) 등 원도심 일원에서 '내일의 전주'를 주제로 '2021 원도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지난 2016년 시작된 전주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이 올해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시는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원도심 재생 방안을 시민들과 논의하고자 이 컨퍼런스를 기획했다.

7일 개막식과 함께 시작된 이 컨퍼런스는 8일부터 △도시활동주체 세션 △도시자산전환 세션 △도시가치회복 세션 △도시의기록 세션 △미래세대 세션 등 5개 세션과 3개의 특강으로 진행된다.

도시활동주체 세션의 경우 청년물과 동네채방 등 기획공간들의 운영방향을 토론하거나 객리단길 사람의 거

리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리행사나 예술인·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목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운영된다.

도시자산전환 세션에서는 동근숲 등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원도심 공유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내 빈집포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간다.

도시가치회복 세션의 경우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유통할 수 있는 인권활동 관련으로, 도시의기록 세션에서는 지역 매거진의 가능성과 원도심 아카이브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미래세대 세션에는 청년들이 가진 이슈를 주제로 자리와 야호 교육통합지원센터의 나아가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특강으로는 △오래된 건축물과 그곳의 기억의 발굴, 조현실 부동산 △새로운 건물주가 온다. 커먼즈클럽 △소셜임팩트로 SDGs하기, 소풍벤처스 등이 기획됐으며, 시민들이 참여하는

활동의 장도 열린다. 이와 함께 △고물자골목의 공간, 사람, 그리고 기록 △원도심 재생사업 기록물 △시·작겨울 등 3가지의 기획전시와 함께 △2021 전주 수공예축제 △무전가카페 △동문 빈집포 솔루션 발표대회 △공연&네트워킹 파티 △전라감영로 거리축제 △원도심 공간라운딩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 등 다채로운 시민 참여 행사도 기획했다.

프로그램별 일정은 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주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6년간의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원도심 활성화 방향에 대한 토론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도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 장수군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성료'

장수군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가 주최한 2021년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가 6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단계적일상회복 1단계 유지에 따라 김용문 군의회 의장, 최한주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등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장과 주민 등 백십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했다.

발표회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밴드공연, 합창, 색소폰, 기타, 하모니카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아낌없이 선

보이며 공연장을 찾은 지역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7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선보인 공연 중 대상은 천천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계남면 주민자치위원회, 우수상은 장계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돌아갔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자치위원 9명을 선정해 도지사표창 및 군수표창을 수여해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도지사 표창에는 김종운 장수읍 주민자치위원장 ▲소순애 번암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정됐으며 군수표창에는 ▲임영란 장수읍 주민

**곽승오기자**

## 2021년 전북평화통일포럼 개최

### 한반도 종전선언, 북한의 입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 회의는 12월 7일 전북지역 자문위원, 포럼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전북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전북평화통일포럼에서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북한」을 주제로 한·미간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협의가 급속도로 조율이 되는 시점에 북한의 반응과 입장을 전망하였다.

오후 2시부터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었으며 홍중식 민주평통 전북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 종전선언 논의 구조가 한쪽을 만족시키면 다른 한쪽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부정적인 전망을 하지만, 북한의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을 통해 보면 아직은 결과를 수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번 포럼에서 좀 더 깊게 북한을 바라보며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좌장을 맡은 안국찬 포럼연구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은 박형준 건국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송재복

(호원대 교수), 김경주(전주비전대 교수), 김성희(전북겨레하나 사무총장), 김성권(민화협 회원사업위원장) 위원이 토론을 진행했으며 참석자들과 유튜브 댓글을 통해 질의응답을 나눴다.

박형준 교수는 "△문제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적대시 정책' 폐기와 '이중기준' 철폐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고 △북한이 밝히고 있는 적대시 사례와 이중기준 관련 사례들이 중단되어야만 대화 재개와 종전선언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의도로 읽히나 △한반도 종전선언 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북한을 볼 때 문을 완전히 닫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대화 중단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한반도 내 평화분위기를 재점화 할 수 있는, 그리고 돌과구 마련을 위한 확실한 촉진 기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일기자**

## 완주군 대중교통 시책평가 3회 연속 전국 1위

### 시내버스 노선개편·공영제·행복콜버스 등 주목



완주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3회 연속 전국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7일 완주군은 '2021년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전국 1위인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기관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시책평가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중교통계획 및 시책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광역시 및 그를 포함한 전국 161개 시·군을 5개 그룹(A~E)으로 나눠 2년마다 대중교통 시책을 평가한다. 이번 실시된 평가는 2019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이뤄졌으며, 완주군은 E 그룹에 속해 1위를 달성했다.

그동안 완주군은 2017년 1위, 2019년 1위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1위에 올라서 3회 연속 대중교통 시책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게 됐다.

평가는 교통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이뤄졌으며 대중교통 행정과 정책지원, 대중교통 이용자 등 4개 부문, 19개 지표, 51개 평가항목에 대해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주

민 만족도 조사와 현지실사가 이뤄졌다.

완주군은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통해 마을과 소재지를 연결하는 마을버스를 도입하고 이를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 방식을 적용한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간 환승요금 체계를 구축하고 행복콜버스와 연계 시킨 점도 주목 받았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으뜸택시(500원 택시), 통학택시, 장애인콜 택시, 행복콜버스 운행 등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 점도 큰 점수를 받았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대중교통은 어르신, 학생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만큼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마을버스 운영을 확대하고 공영제로 직접 운영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친절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중교통 시책평가 시상식은 오는 15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리는 '대중교통 서비스 및 시책평가 위크숍'에서 이뤄진다.

**김광수기자**

## 임실군, 동절기 대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임실군이 동절기를 대비해 지난달 24일부터 7일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안전 점검 대상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제외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관내 아파트 17개 단지 및 연립주택 7개 단지, 다세대주택 11개 단지 총 35개 단지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주체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현행법상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를 두지 않아 건물 안

전관리에 미흡한 실정이다.

군은 안전 점검을 통해 동절기 대비 우수 및 배수로 관리상태, 어린이 놀이터 안전 점검 등 시설물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였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안을 제시해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통해 군민들이 보다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취약한 부분을 개선해 안전 입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 광주광역시 KDB나눔재단, 코로나19 극복 기부물품 전달



## 농산물 밀키트, 겨울 침구세트 등 2500만원 상당

광주광역시는 8일 KDB산업은행 출연 공익법인인 'KDB나눔재단'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물품을 (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물품은 1000만원 상당의 농산물(밀키트) 꾸러미와 1500만원 상당의 겨울침구세트로, 광주시자원봉사센터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탁식에 이어 KDB나눔재단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지역 독거노인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나눔활동을 펼쳤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물품을 기탁한 KDB산업은행과 KDB나눔재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물품이 추운겨울 소외계층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DB산업은행은 2016년 12월 광주시와 미래성장산업 육성 협력지원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광주시의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 금융주선,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제1호 광주형일자리의 캐스퍼 양산에 필요한 차입금 조성에 역할을 하기도 했다.

김덕윤/기자

## 장흥군 이회진항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선정"

장흥군은 해양수산부 주관 2022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서 회진면 이회진항이 최종 선정돼 국비 66억 원, 도비 9억 원, 군비 20억 원 등 총 사업비 95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장흥군은 지난 2018년 회진 노력항을 시작으로 관산 우산항, 회진 신상·신기항, 대리항, 안양 수문항에 이어 6번째로 회진 이회진항이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회진항은 청정 무산(無酸) 해조류를 중심으로 한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열악한 어촌·어항 기반을 정비하고, 해조류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 해조류(김, 다시마, 꼬시래기, 쇠미역 등)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을 메밀꽃 경관 조성 및 소설가

이회진 「선학동 나그네」의 소설 배경이 되는 선학동에 선학동 문학탐방로를 조성하여 문학쉼터와 휴양시설을 확충하고, 인근에는 갯벌체험로 개설로 바지락 및 꼬막 캐기 등 어촌 체험이 가능한 문화와 관광 분야의 인프라 재정비 사업도 추진한다.

기존의 천년학 리조트는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해 해조류복합커뮤니티센터, 해조류연구소, 체험학교, 귀어귀촌머물집 조성 등으로 활용 폭을 넓힐 방침이다.

장흥군 해양수산과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어촌·어항 재생 기반을 구축해 지역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장길/기자

# 전남 지자체, 지방규제혁신상 휩쓸어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 분야별 우수기관으로 전국 최다인 도, 광양, 영암, 화순 등 4개 기관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규제개혁 우수성과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국에 공유하기 위해 해마다 역점 분야별 우수기관을 뽑아 포상하고 있다.

선정 분야는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선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현장 규제 애로 발굴 ▲자치법규 정비 등이다.

행안부는 올해 전국 20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중 전남지역 4개 기관이 포함돼 전국 최다 수상 성과를 거뒀다. 수상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로 화순·영

암이 각 3천만 원, 전남도·광양은 각 2천만 원을 받게 된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기업을 돕기 위해 도·시군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가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현장밀착형 '규제사냥단'을 운영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민하는 규제를 해결해 광역자치단체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영암군은 고용위기지역의 고용·산재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기한에 월별 납부토록 했다. 근로자가 보험료 미납으로 피해를 받지 않고 원활한 직업 활동을 하도록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현장규제 애로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화순군은 동일 건축물 내 담배소매

인을 추가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정, 군민이 겪는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해 자치법규 정비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광양시는 그동안 산업단지 입주할 수 없었던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그 노력을 인정받아 현장 규제 애로 분야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명장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수상 성과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해 규제를 발굴, 개선한 노력의 결과"라며 "내년에도 시군과 함께 도민이 겪는 생활 불편과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현장밀착형 규제를 찾아 해결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 완도군, 국민 배우 '일용 엮니' 김수미 홍보대사 위촉



완도군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모임 자제 등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나눔실천 운동 전개를 위해 출범한 '봉의산 원팀'이 연말연시를 맞아 "봉의산 원팀 기부 챌린지"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박광용 완도군 경제진흥국장은 비롯한 국 직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에 동참했다.

한편, 봉의산 원팀은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완도군, 완도도의회, 춘천시, 춘천시의회, 농협은행 강원지역 본부, 신한은행 강원본부, KT, 코리아센터, 강원도 경제진흥원 등 9개 기관(5,000여명)이 모여 지난 12월 1일 출범 하였다. 봉의산 원팀 나눔실천 운동은 음식 주문 후 '되곤 길 찾아가기'와 '취약

계층 음식 기부'로 구성되어 있다. 박광용 완도군 경제진흥국장은 "봉의산 원팀 프로젝트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 목포시,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목포시가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스키아일랜드(주)를 선정했다.

시는 분야별 평가위원 후보를 전국으로 공개모집해 전문가 10명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개발계획, 재무계획, 운영계획 등에 대한 분야별 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대상자를 결정했다. 스키아일랜드(주)는 동부건설(주), (주)한국토지신탁 등과 콘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참여하며, 구)삼학부두 20만5천㎡ 부지에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와 5성급 호텔 등을 포함한 유원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목포시와 협상을 거쳐 1개월 안에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원지 육상부지 면적 50% 이상은 공공시설로 조성 후 기부채납을 통해 시민들에게 환원된다"면서 "다방면의 제안과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공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동일/기자



area  
호남II

문화매일 11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 해남군 관광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 27작품 선정

해남군은 '여행의 시작, 해남에서 새로운 여행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2021년 해남 관광 사진·영상 공모전을 실시하여 사진·영상 수상작 27작품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남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창의적 작품, 해남의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감각적으로 제작한 작품 등 다양한 주제의 사진·영상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사진은 1인 3작품까지, 영상은 1인 1작품 출품 가능하였으며, 접수결과 사진부문은 128명이 341작품을 출품했으며, 영상부문은 27명이 27작품을 출품하여 총 368작품이 접수됐다.

군은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와 SNS를 통해 대국민 선호도 투표를 진행하여 사진 19작품, 영상 8작품, 총 27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사진대상은 '여기는 해남'을 출품한 김광석씨, 우수상은 '울돌목 스카이워크' 조태관씨, '윤중 도솔암' 박홍남씨가 차지했으며, 영상대상은 '해남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8가지 이유'를 출품한 이은원씨, 우수상은 '슬기로운 해남 스탬프 투어' 박현수씨, '해남에서 쓰는 일기' 김태한씨가 각각 선정되었다.

군 관계자는 "우수한 작품을 출품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수상작들은 해남군 관광 홍보 및 군정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영율/기자

#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area

## 강원/충청

12 문화매일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 천안시, 읍면동 사례관리 담당 직원 역량 강화

천안시가 7일부터 8일까지 이틀에 걸쳐 천안타운홀 회의실에서 읍면동 사례관리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통합 사례현장주도학습' 사례관리 기본과정 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복지업무 추진에 있어 가장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는 사례관리 부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앞서 읍면동 사례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그 결과를 반영해 교육 주제를 선정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충남가정위탁센터 박석란 관장은 사례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기법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4시간 동안 열정적인 강의를 펼쳤다.

그동안 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사례관리 기초 이해, 사례관리의 이론과 모델, 직접실천 기술, 간접실천 기술, 사례관리 과정의 이해 및 적용 등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맹영호 복지정책과장은 "지역 단위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읍면동 사례관리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통해 현장 중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강원도 삼척 남부권역 대피향 점안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강원도환경동해본부는 강원 남부권역 대피향(호산향) 점안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강원 남부해안인 삼척 원덕권역은 어항시설이 미비하여 태풍 및 너울성 파도 등으로 인해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왔다.

호산향은 1972년 지방어항으로 지정, 최근 LNG생산기지(한국가스공사), 종합발전단지(한국남부발전) 등 대형시설 유치에 따른 2013년 남부발전소 방파제(2.6km) 설치로 태풍 및 너울성 파도 피해가 없어 원덕권역 5개어항, 149척의 어선을 대피시킬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어 전용『대피향』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호산향에는 인근 주변항의 대피 어선을 위한 점안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태풍 내습 때마다 수용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80여척의 어선이 대피하여 점안 어선간 충돌, 정박시 이용불편 등으로 점안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7월, 2021년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에 재난분야에 점안시설 확충 예산을 신청하여 10억원이 확보되었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호산향내 물양장을(L=70m) 확충하게 되어 삼척 원덕권역 인근 어항내 90여척의 어선이 안전하게 점안할 수 있어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환경동해본부는 그동안 삼척 원덕권역 어업인들의 지역현안이었던 점안시설을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 이미 도비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태풍 등 자연재해 집중 발생 전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전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 단양군, 공공부문 탄소중립 선도모델 선정! 국비 80억 확보!

충북 단양군이 환경부 주관 공공부문 탄소중립 선도모델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8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8일 군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선도모델 선정에서 ▲업무시설군 ▲연구시설군 ▲문화·체육시설군 ▲하·폐수 및 분뇨처리시설군 ▲소각매립시설군 각 1곳씩 총 5곳이 선정됐으며, 단양군은 소각매립시설 부문에서 군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탄소중립 선도모델 공모사업은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지자체 소유의 건물과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건물의 용도 및 노후도, 온실가스 배출 특성 등을 고려해 최적화된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매포읍 소재 군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및 매립)의 폐기물 재활용률을 최대로 향상시켜 탄소중립 환경기초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내년부터 2년간 전액 국비로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노후 건물 및 시설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탄소배출량 감축 사업을 추진한다.

또 폐기물처리장 내 유희부지에는 재활용 전처리시설을 증설하며, 탄소중립 건축물 조성을 통해 제로에너지 시설로 전환하고 군민들의 탄소중립 교육의 장으로도 적극 활용 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노후건축물 탄소 배출 제로화를 위한 창호 개선, 외단열, 쿨루프, 외부차양 설치, 고효율기기 교체

등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며, 폐기물 종합처리장 유희부지 내에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한다.

또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탄소중립을 위해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반입되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 전처리시설(파쇄시설,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해 폐기물처리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감소시키는 사업을 추진한다.

순문영 군 환경과장은 "폐기물종합처리장을 탄소중립 교육과 홍보에 특화된 탄소중립 롤 모델로 성공적으로 조성해 탄소중립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더 나아가 군의 환경보호 시책이 민간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충남지역 첫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개최



### 양승조 지사 "봉사와 헌신의 정신 더 행복한 대한민국 만드는 원동력"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6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에 참석해 충남 지역 첫 전국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바르게살기운동충남도협의회가 주최하고, 바르게살기운동충남도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양 지사를 비롯해 주요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표창, 퍼포먼스, 행동강령 낭독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이 대회가 시작되고, 충남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만큼 우리 고장에서 보다 알차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한다"

최정근기자

며 "다양한 분야와 활동에 앞장서는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의 정신이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코로나19와 감염병 극복 등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성숙한 시민운동에서 비롯된다"며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을 바탕으로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 함께 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달라"고 전했다.

### 강원도내 자동차부품·이모빌리티 산업, 온라인으로 동남아 시장 공략

#### 12.8. 인도네시아-자동차부품 온라인 프로모션 개최



강원도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수출액 22억 6,800만 불 중 2억 1,500만 불로 품목 2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내 자동차부품 수출의 막바지 고비를 바짝 짊고 나섰

이는 강원도가 2020년부터 매년 자동차부품 수출 타깃국가를 선정, 해당 국가정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현지시장 진출을 시도해 오고 있는 연장선에 있는 계획이다.

올해 도내 자동차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진출희망 국가 수요조사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선정되었으며 전년도 선정국가인 베트남과 더불어 총 4회에 걸쳐 수출상담회 등 온라인 프로모션을 개최한다(11.18., 12.8. 인도네시아 / 12.3., 12.9. 베트남).

이번 프로모션은 12.8. 글로벌 스튜디오에서 인도네시아 대상 자동차부품의 수출 길을 열고 동시에 내년

시장 선점을 위해 전문가들의 온라인 세미나도 병행된다.

행사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진행되며 오전에는 도내 자동차부품&이모빌리티 업체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전문가(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초청 진출 전략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 오후에는 1,2차에 나누어 인도네시아 완성차 업체 및 부품 수입회망업체 등 진성바이어 대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며 도내업체 11개사가 참가하여 제품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선보이고 강원이모빌리티산업협회를 홍보할 예정이다.

최기철 도 중국통상과장은 "코로나19 위기 속, 자동차부품 산업이 어려운 가운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도내 자동차부품업체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자동차의 과거·현재·미래로 대표되는 내연·전기·수소자동차 기술연구 및 생산기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지역은 강원도 밖에 없는 만큼 2022년에도 해외시장 개척과 인지도 향상을 위한 하이브리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 충주시-한국수자원공사, '심향산 아트폴리' 조성 결정

충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생협력 우선 사업으로 '심향산 아트폴리' 조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8일 시에 따르면 충주시·한국수자원공사·이종배 국회의원의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19년 11월 충주댐과 관련된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충주댐 가치 제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협약 이행을 위해 충주시, 시의회, 범시민위원회, 수공, 이종배 국회의원실 소속 실무자 9명으로 지원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실무추진단은 지난해 9월 충주시와 수공 공동 발주로 '충주호 생태관광자원과 연계한 명소화 기본용역'에 착수하는 동시에 자체 회의 등으로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왔다.

충주시·수공·시의회·이종배 국회의원·범시민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충주댐 지역 가치 제고 및 통합 물 복지 실현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 추진 재원에 합의했다.

지난 5월 이종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댐건설법 개정으로 충주댐 주변 지역 지원금 비율이 상향됨에 따라 증액이 예상되는 21억 원 ~ 24억 원의 사업비가 3년에 걸쳐 '심향산 아트폴리' 조성에 투입된다.

충주시는 사업비 전액을 집행해 2022년 실시계획을 거쳐 202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종배 국회의원은 "'심향산 아트폴리' 조성으로 심향산과 충주호 권역이 충주 관광의 중심축으로 발전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시·수공·시의회·이종배 국회의원·범시민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충주댐 지역 가치 제고 및 통합 물 복지 실현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 추진 재원에 합의했다.

충주시는 사업비 전액을 집행해 2022년 실시계획을 거쳐 202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종배 국회의원은 "'심향산 아트폴리' 조성으로 심향산과 충주호 권역이 충주 관광의 중심축으로 발전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이동원 기자

### 양양군 물치항,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사업 선정 '경사'

양양군은 해양수산부 주관 '2022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서 물치항이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 97억원을 확보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2022년까지 전국의 항·포구와 어촌마을 중 300곳을 선정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자연경관, 문화유산, 지역특산물 등 어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올해는 어촌뉴딜300 사업 공모 마지막 해로 전국 50개소 선정에 187개소가 신청해 평균 3.7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선정된 양양군 물치항은 낙후된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의 통합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강현면 7면국도변에 위치한 물치항은 접근성이 뛰어나고 좋은 배후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어항의 숨은 명소다. 2009년부터 도나무 축제를 개최해오며 관광객들에게 이롭고 알렸으며, 특히 올해 테마가 있는 릴레이 축제를 개최하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반면, 낙후된 어항시설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편과 지적이 있어왔다.

물치항은 이번 사업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방파제 보강, 물양장 경관

개선 등 기존 노후 시설을 개선함은 물론, 관광객과 주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도나무 테마길을 조성하는 한편, 관광객 유입 증대와 주민 소득 증진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물치항은 정주여건 개선을 물론, 해양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주민 소득창출 기반 시설을 조성,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발전을 선도할 것이라는 어촌 마을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물치항은 지난 2일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어촌특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해양수산부장관상과 부상으로 상금 200만원을 받는 경경사를 맞았다.

'어촌특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어촌특화마을 간 경쟁력 강화와 우수사례 확산을 목적으로 마을 갈등 해결과 개선, 어촌특화상품개발, 마을 이미지 경관개선 등을 평가, 우수마을을 선정하는 행사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어촌·어항 재생 기반시설 확충,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 실질적인 주민의 소득증대와 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만식기자

### 천안시립미술관, 연말 맞아 12월 문화행사 개최

천안문화재단은 천안시립미술관이 연말을 맞아 '굿바이(Good Bye) 2021, 헬로(Hello) 2022' 문화행사를 2021.11월부터 1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행사는 '천안제로프로젝트 : 2021 올해의 청년작가' 전시(12.3~12.19)와 연계해 전보배·양진아 두 작가가 전하는 '아트메시지가 담긴 포춘쿠키'를 비롯해 다가오는 2022 임인년 검은 호랑이해를 맞아 험하고 비범한 호랑이 기운을 전할 '헬로(Hello) 2022! 호랑이 배지'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호랑이 배지 나눔 행사는 천안제로프로젝트 전시를 관람한 후 개인 SNS에 후기를 게시해 현장에서 인증하면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호랑이 배지를 제공한다.

최정근기자



미술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준비한 이번 행사를 통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아 미술관에서 소중한 경험을 만들어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culture

문화

14 문화매일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 고양시립합창단 제69회 정기연주회 '송년 음악의 향연' 개최

고양시가 시 문화공연을 선도하는 고양시립합창단의 제69회 정기연주회 『송년 음악의 향연』을 오는 12월 9일(목) 저녁 8시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하이든홀)에서 개최한다.

연주회의 시작을 알리는 무대는 캐틀 '눈이 내리네(Let it snow)', '겨울 동화나라(Winter Wonderland)', '썰매 종소리(Sleigh Bells)'이다. 관객들에게 한해의 멋진 마무리를 선사하는 합창 무대가 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무대는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수록곡을 담은 갈라 콘서트다. 지킬의 결심을 담은 '지금 이 순간(This is the moment)', 엠마가 지킬과의 사랑을 추억하며 부르는 '한 때는 꿈에(Once upon a dream)', 뮤지컬 합창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살인, 살인(Murder, Murder)', '가면(Facade)' 등을 고양시립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이번 고양시립합창단 제69회 정기연주회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행복한 연말을 선사하고자 전석 초대로 진행된다. 예매 및 관련 문의는 고양문화재단으로, 공연문의는 고양시립예술단으로 하면 된다.

한영기/기자

### 순천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최

순천시는 지난 4일 조례호수공원에서 2021년 순천시 청소년어울림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어울림마당은 2021년 순천시 청소년어울림마당의 마지막 행사로 학업과 비대면 생활에 지친 청소년과 시민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청소년 동아리공연, 체험부스 및 마술공연, 장터마당 등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마련됐다.

올해 순천시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지역 내 공방과 연계한 소규모 체험활동, 체험키트를 활용한 비대면 어울림마당 및 지역축제와 함께하는 대면 행사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공연, 경연, 전시, 놀이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 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의 생산·소비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아리 및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청소년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순천시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그동안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관객과 대면해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기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조기석/기자

##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결과보고회 개최

12월7일 오후2시 KT&G상상마당춘천 나비홀에서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결과보고회 개최

(재)강원문화재단 강원국제예술제 운영실은 12월 7일 오후2시 KT&G 상상마당 춘천 나비홀에서 국내 최초 노마드 시각예술 축제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의 결과보고회를 진행한다.

이번 결과보고회는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내년부터 펍장에서 3년 동안 개최되는 강원트리엔날레 준비의 초석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결과보고회에는 김필국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성호 예술감독과 큐레이터팀, 강원도청 문화예술과 한영선 과장, 강원국제예술제 운영위원, 흥천군청 및 흥천문화재단, 평창군청 및 평창문화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신지희 강원국제예술제 운영실장의 '강원트리엔날레 3년 추진 경과 보고', 김성호 예술감독의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행사보고', 한림대 융합문화콘텐츠연구소 조정래 교수의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평가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하계훈(미술평론가) 운영위원의 '강원트리엔날레 발전방안'순서로 진행된다.

주요성과로는 한국 최초 노마드 시각예술축제로서 국제적 위상 제고, 4곳의 유희공간 재생한 문화예술공간 구축, 군·관·민 주민이 함



이동원/기자

께 만들어 낸 지역 예술제의 모범사례 제시, 온·오프라인 동시 추진으로 시·공간 확대, 154.8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꼽았다.

3년 행사 평가연구 자료에 따르면 '예술성 높은 콘텐츠로' '2019~2021 한국 시각예술의 현주소 및 시대 정신 요약',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일상의 예술화에 따른 시대적 공감 확대', '강원도 예술작가의 참여를 통해 지역예술에 대한 기대와 자긍심 고취',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예술을 통한 일상과 지역재생의 소망을 지원하는 주제

전시를 통해 대내외적 사회 이슈에 대한 공감 확보'등 문화예술 도시 구성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 해로 1기 운영위원장 임기를 마치는 신철균 운영위원장은 "첫 행사 개최라는 어려움과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강원도·흥천군·강원문화재단·흥천문화재단의 협업으로 3년의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라며 "성공 개최를 위해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 옆집 예술가의 작업실을 들여다보다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현)은 올해로 7화째를 맞은 '옆집에 사는 예술가' 동두천 편을 온라인으로 선보인다.

'옆집에 사는 예술가(이하, 옆집 예술)'는 경기도 각지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작업실을 대중에 개방하는 오픈 스튜디오 프로그램이다. 예술가의 창작과 일상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작업실'에서 지역의 주민과 예술가가 보다 생생하게 교감하게 하고자 기획되었다.

2015년 시작된 옆집예술은 지난 7년간 경기도 전역의 예술가 작업실 105곳을 발굴해 왔다. 2021년 올해는 동두천을 찾아, 8명의 작가 작업실 현장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공식 홈페이지(www.g-openstudio.co.kr)와 유튜브 채널('옆집에 사는 예술가')에 공개한다.

▲ 옆집예술 2021 참여작가 : 김도영, 김민호, 김윤미, 방두영, 승경란, 이완정, 이태근, 최상용  
원래 '옆집예술'의 중심에는 작업실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예술가의 일상을 엿보고, 취향이나 습관을 나누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러나 일상을 멈춘 팬데믹 앞에서 옆집예술은 관람객의 방문을 부득이하게 쉬어가야 했다. 대신, 영상과 자료집을 통해서라도 '옆집에 사는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 옆집예술 2021 - 동두천 디자인아트빌리지의 예술가들을 만나다  
일상의 마비가 아직 가지지 않은 2021년, 옆집예술 기획팀은 '작가들이 모여 사는마을'의 소식을 듣고 동두천으로 향했다. 목격적인 '디자인아트빌리지'는 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활력을 잃은 상권을 회복하고자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 내에 조성된 공방 거리였다. 하지만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무색하게도, 가게 곳곳은 여전히 비어있고 거리에는 좀처럼 사람이 보이질 않는 상태다. 그럼에도 디자인아트빌리지 일원의 예술가들은 매일 이곳을 지키고 있다.

'무농' 김도영 도예가는 2014년 이곳에 자리 잡은 1호 입주작가다. 디자인아트빌리지의 초창기 구상부

터 완성까지 깊숙이 관여했던 그는, 투자된 예산과 땅이 헛되지 않게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그래픽터, 힙합, 타투 등 한국의 색을 입은 미국문화의 흔적과 현재의 한국문화예술 간의 교차점이 될 퓨전 콘텐츠를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5년째 이곳에서 묵묵히 작업을 이어온 승경란 작가는 활기찬 분위기가 좀처럼 자리잡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전통적인 공예기법이 현대에 줄 수 있는 율림과 쓰임의 방법들을 고민하며, 더 많은 수요자와의 만남을 기다려왔던 그다. 북적이던 사라진 거리에 고민이 깊지만, 적극적인 소통으로 작업 세계를 넓혀가리라는 기대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분위기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흡수하는 경우도 있다. 폐정권에 이곳으로 작업실을 옮겨온 최상용 작가는 이국적인 문화의 흔적과 오래된 길거리가 선사하는 세월의 맛을 즐기고 있었다. 조용하면서도 여전히 손맛이 살아 있는 동두천의 분위기는 그에게 오히려 매력적인 창작배경이 되어주고 있다. 이태근 작가 역시 동두천 인근의 산들을 매주 찾아 산수화첩을 채워나가며, 새로운 색채와 화풍을 펼쳐가고 있다.

도박이 예술가들 또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이곳을 묵묵히 지키고 있다. 동두천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서 활동하다 다시 동두천으로 돌아온 방두영, 김민호, 이완정 작가가 그러하다. 또한, 동두천에서 나고 자라지 않았음에도 도박이 못지않게 지역의 예술 창작 여건 활성화에 정성을 쏟는 김윤미 작가의 목소리는 언제나 진심이다.

이들은 단순히 개개인의 이권에 욕심내기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데 익숙했고, 지자체와 적극적 소통을 주도하며 지역 문화예술의 미래를 살뜰히 챙기고 있다. 거대한 규모는 아니지만 콩 한쪽도 나누어 먹고, 서로의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진정한 이웃한 예술가들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혜영/기자

##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제181회 정기공연 '송년음악회' 개최

민속과 궁중 의식음악의 결정체, 진도씻김굿과 종묘제례악의 만남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이 오는 12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제181회 정기공연 송년음악회를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 무대에 올린다.

이번 송년음악회는 망자의 한을 깨끗이 씻겨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진도씻김굿'과 조선시대 종묘에서 역대 왕과 왕비들에게 제향을 지낼 때 연주하는 '종묘제례악'으로, 민속과 궁중에서 행해지는 망자에 대한 의식음악의 특별한 만남을 하나의 무대에서 펼쳐진다.

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로 지정된 '진도씻김굿'은 진도에서 전승되는 망자 천도굿으로, 예술적인 요소가 풍부하여 완성도 높은 음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진도씻김굿'의 여러 절차 중 이승과 저

승을 이어주는 길을 상징하는 베를 따라 망자의 넋이 평안하게 극락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길 닦음'을 선보인다.

'종묘제례악'은 조선왕조의 왕실사당인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의식을 더욱 장엄하게 하기 위해 기악과 노래, 춤을 함께 연행하는 의식음악으로, 종묘제례와 함께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으며, 우리나라 처음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오늘 공연에서는 '종묘제례악'의 예술적인 부분을 집중하여 구성한 연주를 선보인다.

공연의 연출은 다수의 마당극, 창극, 창무극 등에서 다채로운 연출을 해왔던 류기형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 예술감독이 맡았다.

김원호/기자

## 2021 영천시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한 해 동안 고생한 자원봉사자들 격려의 장 마련



영천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일 청소년수련관에서 한 해 동안 고생한 지역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2021 영천시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했다.

퓨전플룻 식전공연과 함께 시작된 이번 대회는, 지역의 재난재해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 달려가 봉사활동을 펼쳐 온 자원봉사자들 34명에게 표창상(개인 32, 단체 2)을 수여하고 그동안

개선활동을 꾸준히 펼쳐 귀감이 되고 있다.

유석권 이사장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험지에서 봉사활동을 펼쳐 주시는 봉사자분들에게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으며,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최기문 영천시장과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은 "2만여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있어 영천은 든든하다며 2021년 올해도 고생 많으셨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최 시장은 "화북지역 집중호우 피해농가 지원, 청년CEO가게 화재 복구 지원, 통합예방접종센터 업무 지원 등 적극적으로 도움에 나서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영천 시기에 희망이 보인다"라며 "내년에도 많은 봉사활동을 부탁하며 영천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지난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안전부 주관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2021년 자원봉사주간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장동호/기자

## 화순군, '2021 화순군 자원봉사대회' 개최

봉사 활성화 기여자에 표창 수여 등 노고 격려



화순군이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앞장선 자원봉사자를 응원하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2021 화순군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했다.

화순군은 7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다목적실에서 구충곤 화순군수, 최기천 화순군의회 의장, 신정훈 국회의원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90여 명이 참석한 '2021 화순군 자원봉사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자원봉사대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웃을 위한 나눔으로 따뜻한 2021년 한 해를 만들어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4개 단체와 개인 8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도지사상에는 ▲강금순(화순군 남도사랑봉사단) ▲김영희(화순군여성의용소방대) 씨가 선정됐다.

군수상 단체 부문에는 ▲한국생활개선화순군연합회 ▲화순읍자율방범대 ▲화순군여성이용소방대 ▲능주맹정복지센터가 선정됐고, 개인 부문에는 ▲김보현(한국부인회 화순군지회) ▲김희경(녹색어머니회) ▲박태은(한국생활개선화순군연합회) ▲정은은 ▲정영옥(한국생활개선화순군연합회) ▲황서순(화순군 남도사랑봉사단) 씨가 선정돼 이웃에 헌신한 노고를 인정받았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자원봉사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 내밀어주시고,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 하동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 행안위 통과

하동군이 추진해 왔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7일 전체회의를 통과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오는 2024년부터 1kWh(킬로와트시)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 공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반면 건강권과 환경권의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지역에서 감수하고 있으며,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조 2000억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력발전의 세율은 10㎡당 2원, 원자력발전은 1kWh당 1원으로 이에 비해 화력발전은 유독 낮은 0.3원을 적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하동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연간 63억원에서 126억원으로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게 된 것은 군과 군의회, 지역 국회의원, 군민 등 민·관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라며 "해당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 고흥군, 2022년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2개소 선정



고흥군 대서면 신기·송림권역, 금산면 청석항 2개소가 내년도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등 총 사업비 24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4년 연속 어촌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어촌 활성화와 주민소득 향상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국제사업으로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촌뉴딜 300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으로 국비 70%를 사업비로 지원하게 된다.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은 전국 54개 시·군·구에서 187개소가 신청해 3.7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50개소가 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

고흥군은 사업대상지 공모를 앞두고 지역협의체 간담회 및 전문가와 맞춤형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관련기

관을 방문하는 등 면밀한 준비를 해 3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고흥군은 대서 신기·송림권역에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 어항시설을 정비하고, 한마음 공동작업장 및 가공장, 어민쉼터 등을 조성하며, 금산 청석항에는 81.5억원을 투입하여 선착장 확장, 물양장 추가, 마을안길 도로 보행로 포장 등을 추진한다.

송기군 고흥군수는 "삼면이 바다인 고흥의 어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면밀히 공모를 준비해 온 결과 4년 연속 사업선정의 쾌거를 이루게 됐다"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어촌 환경 개선은 물론 필수 기반시설의 현대화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업 생산성 증대와 소득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흥군은 2019년 2개소 105억원, 2020년 3개소 228억원, 2021년 1개소 49억원에 이어 2022년 3개소 245억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627억 원을 확보했으며 대상지는 총 9개소로 늘었다.

조기석기자

# 충청북도, (주)네패스라워 반도체 첨단 패키지 청안공장 준공식 개최

반도체 첨단 패키지 전문업체인 (주)네패스는 7일(15시), 괴산 청안공장(4층)에서 (주)네패스라워 첨단 패키지 공장(FAB)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 이차영 괴산군수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준공식은 코로나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행사 인원을 최소화 등 코로나 감염예방 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했다.

행사는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네패스 소개(영상), 기념식, 테이프 커팅 등 순으로 진행했다.

'(주)네패스라워 청안공장'은 괴산 첨단산업단지 내 연면적 38,266㎡ 규모에 총사업비 약 2,200억 원을 투자하여 완공한 반도체 첨단 패키지 공장이다.

PLP(Panel Level Package) 칩 제조 및 첨단소재 연구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향후 국내외 수요에 맞춰 추가 증설할 계획이다.

특히 PLP 기술은 글로벌 최대 크기인 600x600mm 대형 사각 패널에 초미세 고집적 반도체 칩들을 첨단 패키지 처리하는 기술로서 패키지 수율, 생산성 향상 및 칩 성능 측면에서 기존 대면 패키지 경쟁업체들의 주력 기술



인 WLP(Wafer Level Package)에 비해 우위에 있다.

이와 같은 반도체 첨단 패키지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반도체 대기업으로부터 대량 수주를 받아 양산을 시작했고 향후 타 업체들로부터의 추가 수주도 예상되어 종장기 글로벌 반도체 패키지 분야를 선도할 것이라 점에서, 충청북도에 기반을 둔 네패스라워 청안공장의 준공은 충청북도의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네패스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규모 시설투자를 과감히 실천함으로써, 2024년에는 매출 1조 이상의 기업 성장과 1,5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북도는 (주)네패스라워 청안공장 준공을 계기로 정부의 K-반도체 벨트 전략과 연계한 중부권 반도체 후공정(패키지&테스트) 거점 조성을 통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반도체 후공정 산업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과감한 시설투자와 적극적인 연구개발로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킨 (주)네패스가 세계적 첨단 패키지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후공정 분야를 선도하는 혁신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경기도 노력으로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확정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합'이 이뤄지게 됐다.

이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국가 예산에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국비 50%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내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지원금은 기존 30%에서 20% 상향된 364억 원으로 확정됐다. 나머지 50%인 지방비 364억 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관련 예산은 총 728억 원에 달한다.

이번 지원금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151억 5천만 원에서 크게 증액된 규모로, 국고 부담률 20% 증가와 2022년 신규노선사업 지원금이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결과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5월 국토교통부와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운전자 총원 등 '버스분야 발전방안'을 공동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는 경기도 일반 시내버스의 요금을 인상

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도내 광역버스 노선을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이관하는 한편, 준공영제 국고 부담률을 50%까지 상향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이어 지난해 12월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 사무로 전환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다 시도와 협력을 문제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광역버스의 국고 부담률을 50%로 상향시킬 수 없다"며 계속 반대해 왔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국비 30%를 반영해 제출했다.

특히 도는 그간 기재부 방문, 기재부 주관 지자체 순회 지방재정협의회 참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합의사항에 대해 여러 차례 적극 설렘했지만, 기재부는 합의 이행에 계속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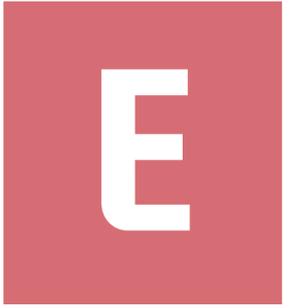
이에 도는 지난 8월 광역버스 국고 부담률 50% 합의 이행을 위한 서한을 국회에 보내 기재부의 전환적 자세를

촉구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에서도 지난 1월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힘을 적극적으로 보탤었다.

이로써 국가 사무로 운영하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은 2020년 9개, 올해 18개에 이어 내년에는 74개 노선(대광위 이관 노선 66개, 신규 노선 8개) 등 총 101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 허남석 교통국장은 "광역버스 국고 부담률 50% 확보에 도움을 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종배 위원장)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들께 더 나은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혜영기자



Economy

경제

문화매일

15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 광명시, 웰다잉(Well-Dying)문화 정책제안 및 인식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광명시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존엄하고 편안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Well-Dying)문화 정책제안 및 인식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박승원 광명시장, 관련부서장, 유관단체장, 광명시 노인위원회 및 (사)웰다잉문화운동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보고를 듣고 질의응답과 의견수렴 과정 순서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그 간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웰다잉 문화도시를 향한 광명시 웰다잉 로드맵을 제시하고, 인프라 구축, 조례제정, 문화조성, 인력양성의 4개 분야 19개 핵심 사업을 제안했다.

시는 이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광명시 웰다잉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프라구축 및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추진계획을 부서별 협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종보고회에는 광명시 노인위원회 위원 40여명이 참석하여 웰다잉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며, 교육과 홍보를 위한 제도 정비와 시민교육 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에 박승원 광명시장은 "웰다잉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도출된 추진 과업을 적극 반영하겠으며, 필요하면 추경예산 편성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만큼은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7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개원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장례지원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품격 장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주체적이고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돕는 인생노트(자서전, 유서쓰기, 장례체험 등) 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

윤용민기자

ZOOM

영양군  
YEONGYANG-GUN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숲

한국의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고  
조지훈과 주시마를  
향유하는 숲길

길

천년고찰 이서사  
아름다운 숲길  
영양국립자연휴양림  
영양국립자연휴양림

빛

별이 쏟아지는 밤  
영양국립자연휴양림  
영양국립자연휴양림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영양국립자연휴양림

맛

사백년 전통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영양국립자연휴양림

연

사랑과 추억이  
담겨있는  
영양국립자연휴양림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김동욱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계곡, 수계곡, 본계곡, 침적공원, 측백수림, 외씨비전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감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립자연휴양림,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 Entertainment Weekly

16 문화매일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 뮤지컬 '곤 투모로우' 개막까지 D-1, 뜨거운 열기로 물든 연습실 현장 공개!

12월 4일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개막을 앞두고 있는 뮤지컬 '곤 투모로우'(제작: PAGE1)이 개막까지 단 하루만을 남겨두고 실제 공연을 방불케 하는 열띤 연습 현장을 공개하며 본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지난 2016년 초연 이후 5년여의 기다림 끝에 돌아오는 뮤지컬 '곤 투모로우'는 올 겨울, 가장 가슴 뜨거워지는 공연을 선사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날 공개된 뮤지컬 '곤 투모로우'의 연습실 현장 스킷 사진에는 각자 배역에 몰입하여 열연하고 있는 '김옥균'역의 강필석, 최재웅, 송원근, 노윤을 비롯하여 '한정훈'을 맡은 김재범, 신성민, 이혜준, 윤소호, '고종'역의 고영빈, 박영수, 김준수의 모습과, 이들과 함께 극의 중심을 잡고 이끌어 갈 조연 배우들, 넘치는 에너지의 앙상블까지 잘 짜인 팀워크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순간들이 담겨 있다. 갑신정변을 일으킨 조선 최초의 혁명가 '김옥균'을 맡고 있는 강필석, 최재웅, 송원근, 노윤 배우는 캐릭터가 가진 깊은 감정선을 섬세하게 표현해내며 작품에 진지하게 몰입하는 모습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연습 사이사이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대본에 대한 의견을 나누던 '한정훈'역의 김재범, 신성민, 이혜준, 윤소호 배우는 거짓 신분으로 김옥균에게 접근하는 암살자에 몰입해 냉철한 눈빛으로 좌중을 압도하다가도 혼란스러움을 표현하는 복잡한 감정연기를 선보여 업그레이드된 캐릭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비운의 왕 '고종'을 맡은 고영빈, 박영수, 김준수 배우는 짧은 순간의 뛰어난 무대 장악력으로 무기력하고 나약하면서도 이기적인 복잡한 면모를 완벽하게 표현하며 배우와 스태프의 감탄을 자아냈다. 뿐만 아니라 강렬한 존재감이 돋보이는 '이완'역의 김태환, 신재희 배우는 물론,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는 '중윤'역의 한동훈 배우와 심새인 안무감독이 이끄는 12인의 앙상블이 환상적인 호흡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더할 예정이다. 뮤지컬 '곤 투모로우'는 갑신정변이라는 근대적 개혁운동을 일으켰으나 3일 만에 실패하고 결국 암살당한 김옥균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새롭게 재창조된 작품으로 숨겨왔던 역사의 한 순간을 세련된 감각으로 약 150분이라는 시간에 담아 무대에 올렸다. 세 인물과 이들을 둘러싼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총합한 스토리 라인과 당시 지식인들의 고뇌와 갈등을 통해 비운의 시대 속 아픔을 섬세하게 담아내며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동시에 끌어내며 큰 사랑을 받은 바 있다.

오는 12월 4일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두 번째 시즌의 개막을 앞두고 있는 뮤지컬 '곤 투모로우'는 개화당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1884년 12월 4일부터 137년이 흐른 지금, 무대 위에서 역사의 한 순간을 다시 펼쳐보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동과 먹먹한 여운을 선사할 작품으로 관객들은 물론 언론과 평단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작품성과 대중성, 화제성까지 흥행 3박자를 모두 갖춘 창작 뮤지컬 '곤 투모로우'는 2021년 12월 4일부터 2022년 2월 27일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3차 티켓오픈은 12월 7일 인터파크에서 진행되며, 티켓가격은 VIP석 99,000원, R석 88,000원, S석 66,000원이다. 최재은기자

# 영화 '킹메이커', 캐릭터 포스터 공개

치열한 선거판에 뛰어든 12인!



2021년 가장 뜨거운 영화로 주목을 받고 있는 '킹메이커'가 치열한 선거판 중심 속 인물들의 모습을 담은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했다. '킹메이커'에는 각기 다른 목적과 정치적 신념을 지닌 캐릭터들이 등장해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인다. 장르를 불문하고 압도적인 열연을 펼치는 배우 설경구와 매 작품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하는 배우 이선균뿐 아니라 대체 불가한 연기 내공을 갖춘 유재명, 조우진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들의 골든 캐스팅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박인환, 이혜영, 김성오,

전배수, 서은수, 김중수, 윤경호와 특별출연 배종옥까지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배우들이 출연해 뜨거운 시너지를 펼칠 예정이다. 영화 '킹메이커'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도전하는 정치인 '김운범'과 존재도 이름도 숨겨진 선거 전략가 '서창대'가 치열한 선거판에 뛰어들며 시작되는 드라마. 이번엔 공개된 캐릭터 포스터에는 '킹메이커'를 이끄는 주요 인물 12명의 면면이 담겨 있어 이목을 집중시킨다. 먼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도전하는 정치인 '김운범'의 캐릭터 포스터 속 "어떻게가 아니라 왜 이겨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법일세"라는 카피는 승리에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운범'의 지를 집착하게 해 눈길을 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을 바꾸려면 우선 이기셔야 합니다"라는 카피가 돋보이는 '서창대'의 캐릭터 포스터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서창대'의 신념을 암시한다. 이는 소신과 열정을 가진 정치인 '김운범'과 존재도 이름도 숨겨진 선거 전략가 '서창대', 두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뜻은 같으나 그 이유와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 이에 이치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두 사람이 함께 선거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어떤 갈등을 빚게 될지 궁금하게 한다. 이어 "이번엔 우리 젊은 40대들이 한번 바꿔봅시다"라는 패기 넘치는 카피와 어우러져 있는 '김영호'의 캐릭터 포스터는 야당의 실제 국회의원

'김영호'가 평생 라이벌이자 러닝메이트인 '김운범'과 어떻게 엮이게 될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또 예리하게 눈을 빛내고 있는 모습이 돋보이는 '이실장'의 캐릭터 포스터는 "원래 정의라는 것은 승자의 단어 아닙니까?"라는 카피와 조화를 이루며 여당의 선거 전략가인 '이실장'이 어떤 위기를 선사할지 기대하게 한다. 여기에 위풍당당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강인산'의 모습과 "아직 거리의 개념을 모르시는구만"이라는 카피는 그의 정치적 자부심과 자존심을 느끼게 하며, 야당 의원 '이한상'의 포스터 속 "나한테 당 총재와 총무를 동시에 배신하란 얘기 아닙니까?"라는 의미심장한 대사는 치열한 전략 싸움이 벌어지는 선거판의 모습을 엿보게 한다. 또 '김운범'의 최측근 '박비서'와 그를 물심양면 돕는 '이보좌관', 그를 지지하는 선거 운동원 '수연'의 캐릭터 포스터는 '김운범'의 든든한 지원군인 이들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대통령'의 모습과 그의 행동대장 '김부장'의 매서운 눈빛이 담긴 포스터는 이들이 자아낼 위기와 긴장감을 예고한다. 마지막으로 '김운범'의 아내이자 정치적 지원군인 '이희란'까지, 다양한 매력을 갖춘 영화 속 캐릭터들은 '킹메이커'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캐릭터 포스터 12종을 공개한 영화 '킹메이커'는 오는 12월 개봉 예정이다. 현유주기자

# 영화 '버추얼 게임', 12월16일 개봉 확정

전 세계 영화제 13관왕, 영국 박스오피스 TOP 10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주목받은 '버추얼 게임'이 오는 12월 16일 국내 개봉을 확정하고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버추얼 게임'은 괴짜 억만장자인 버추의 첨단저택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에 참여한 다섯 명의 천재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의해 그곳에 갇히게 되면서 벌어지는 탈출기를 담은 영화다. 첨단저택과 인공지능, 가상현실이라는 SF영화의 종합판과 같은 설정에

더불어 뛰어난 지능을 가진 인간들이 첨단 기술에 맞서는 모습을 통해 선사하는 희열로 영국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영화가 국내에 상륙하며 예비 관객들의 기대를 불러 모은다. 한편, 공개된 메인 포스터에는 각각 개성 있고 강렬한 이미지의 인물들이 눈길을 사로잡으며 다섯 명의 천재 학생이 어떻게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지, 그들과 괴짜 억만장자 버추가 어떤 관계일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인물들 못지않게 강한 포스와 신비

로움을 내뿜는 첨단저택 역시 내부 모습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한다. 더불어 "천재들의 한판승부 첨단저택을 탈출하라!"라는 카피는 첨단저택에 갇힌 상황에 대한 긴장감을 선사하는 동시에 인물들의 천재성이 어떻게 발휘될지 이목을 집중시킨다. 첨단저택을 배경으로 천재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대결을 펼치며 긴장감과 몰입감을 선사하는 SF 종합판 영화 '버추얼 게임'은 오는 12월 16일 개봉한다. 최만식기자

# 배우 옥주현, SBS '나이트라인' 출연

'레베카' 인기 비결 밝힌다!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 없는 작품, 뮤지컬 '레베카'가 지난달 16일 여섯 번째 시즌을 개막한 가운데, '덴버스 부인' 역으로 완성도 높은 무대를 이어가고 있는 배우 옥주현이 뉴스에 출연한다. 옥주현은 내일(7일) 밤 00시 30분부터 방송되는 SBS '나이트라인'의 초대석에 출연한다. '나이트라인'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자정이 넘는 시간, 심야의 시청자들을 위한 뉴스 프로그램으로, 배재학 앵커가 단독 진행을 맡고 있다. 뮤지컬 '레베카'의 초연에서 '덴버스 부인'으로 '레베카 신드롬'을 일으키며 '제7회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옥주현은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에서도 '덴버스 부인'으로 무

대에 오르고 있다. 옥주현이 맡은 '덴버스 부인'은 '레베카'의 신임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아온 맨날리 저택의 집사로, '나(1)'와 대적점에 놓인 인물이다. 초연 당시 옥주현에게는 첫 약역으로, 옥주현이 고혹적인 자태로 무대를 누비며 '덴버스 부인'의 대표곡이자 뮤지컬 '레베카'의 주제곡인 '레베카'의 고음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장면은 매 공연마다 '레전드' 장면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SBS '나이트라인' 초대석 출연 예고에 뮤지컬 팬들의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다. 뮤지컬 '레베카'에서 없어서는 안될 '대표 아이런'이 된 옥주현은 이날 자신에게 인생 캐릭터를 안겨 준 작품 소개부터 뮤지컬 배우 옥주현

에게 뮤지컬 '레베카'가 갖는 의미, "한 번도 안 본 관객은 있어도 한 번만 본 관객은 없다"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레전드 뮤지컬'이 된 작품의 인기 비결, 매 시즌 무대에 오르는 소감을 비롯해 '옥덴'만의 매력 등을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할 예정이다. 뮤지컬 '레베카'는 다프네 듀모리에의 베스트 소설 '레베카'를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스티ل리의 가장 알프레드 히치콕의 동명 영화로도 유명한 작품이다.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은 뮤지컬 '모차르트!', '엘리자벳'의 작곡가 실베스터 르베와 극작가 미하엘 쿤체의 손에서 탄생한 명작이다. 2006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레이문드 극장에서 첫선을 보인 뮤지컬 '레베카'는 이후 전 세계 12개국, 총 10개 언어로 번역돼 공연됐으며, 2013년 한국 초연 이후 2019년 다섯 번째 시즌까지 총 687회 공연에 총 관람객 83만 명, 평균 객석 점유율 98%를 기록한 '메가 스테디셀러'다. 최근 이어지는 매진 행렬로, 또 한번 연 말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다. 뮤지컬 '레베카'는 옥주현 외 민영기, 김준현, 예녹, 이장우, 신영숙, 임혜영, 박지연, 이지혜 등 최고의 배우들과 함께 내년 2월 27일까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최만식기자

# 연말연시 뮤지컬 작품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 찾아간다



개봉 후 실관람객들의 뜨거운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뮤지컬 '팬텀'의 실황 영화 '팬텀: 더 뮤지컬 라이브'부터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뮤지컬 '모차르트'까지, 연말연시 보기 좋은 뮤지컬 작품들이 다양한 방식과 높은 접근성으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지난 11월 개봉하여 호평을 받았던 뮤지컬 영화 '디어 에반 헨스' '틱, 틱... 뚝!'을 이어 이번 연말연시,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즐기기에 좋은 뮤지컬 작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들을 찾아온다. 지난 12월 1일 개봉 이후 실관람객들의 호평 세례를 받고 있는 공연 실황 영화 '팬텀: 더 뮤지컬 라이브', 특별히 크리스마스에 온라인으로 찾아오는 뮤지컬 '모차르트!', 스티븐 스피버그의 뮤지컬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먼저, '팬텀: 더 뮤지컬 라이브'는 2015년 초연부터 2021년 4년까지 누적 관객 수 55만 명 돌파, 2021년 코로나로 침체된 공연 시장 속에서도 객석 점유율 92%라는 기록을 세웠던 흥행 대작 뮤지컬 '팬텀'의 실황을 담았다. 규현, 임선혜, 윤영석, 신영숙, 예녹, 임기홍, 김주원, 윤전일 등 뮤지컬 배우, 소프라노, 발레리나까지 대

한민국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한 초호화 캐스팅으로 주목받았던 '팬텀: 더 뮤지컬 라이브'는 생생함과 현장감을 그대로, 감동과 전율을 더욱 살려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1월이라도 무대와의 거리가 있던 대극장과는 달리, 배우들의 눈빛, 떨리는 손끝까지 포착한 클로즈업을 포함 다양한 각도를 볼 수 있는 촬영과 영화적 편집 방식이 더해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네마틱뷰를 통해 관객들이 무대 위에 함께 하는 듯한 몰입도를 선사한다. 또한 영화관에 최적화된 섬세한 사운드 편집을 통해 현장의 웅장함을 그대로 전하는 것도 놓치지 않았다. 여기에 오페라의 유령, '팬텀'의 숨겨진 이야기와 정통 소프라노, 오페라, 클래식 발레까지 다양한 무대 예술을 한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뮤지컬 '팬텀'만의 장점은 관객들에게 힐링과 감동을 전하며 연말연시까지 극장을 따뜻하게 물들일 예정이다. '팬텀: 더 뮤지컬 라이브'에 이어 작년 10주년 공연을 맞이했던 뮤지컬 '모차르트'가 네이버TV 후원 라이브를 통해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돌아왔다.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맞아 스페셜 에디션으로 찾아온 '모차르트'는 공연 실황 영상은 물론, 서울 마지막 공연 당시 백스테이지 영상까지 만나볼 수 있다. 김준수, 김소향, 민영기 등이 출연하며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총 3회 스트리밍이 진행된다. 2022년 1월 12일 개봉하는 스티븐 스피버그의 첫 뮤지컬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1957년 초연 이후, 지금까지 명작으로 평가받는 동명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원작으로 한다. 스티븐 스피버그의 손에서 재탄생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뉴욕 거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예고되어 기대를 더하고 있다. 아름다운 음악은 물론, 대극장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시네마틱뷰로 연말연시와 어울리는 감동을 선사할 '팬텀: 더 뮤지컬 라이브'는 현재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최재은기자

# '배드 앤 크레이지' 이동욱-한지은, 묘한 ex-텐션

전 연인의 '극과 극 온도차'



tvN '배드 앤 크레이지'의 '전 연인' 이동욱과 한지은이 주고받는 시선 속에 담긴 묘한 감정들이 궁금증을 더해 긴장감을 유발한다. '해피니스' 후속으로 12월 17일 첫 방송되는 tvN 새 금토드라마 '배드 앤 크레이지' 측은 7일 이동욱(류수열 역)과 그의 전 여자친구 한지은(이희경 역)의 투샷을 공개해 시선을 강탈한다. 멀고도 가까운 거리감으로 묘한 텐션을 자아내는 두 사람의 관계가 궁금증을 절로 높인다. '배드 앤 크레이지'는 유능하지만 '나쁜 놈' 수열이 정의로움 '미친 놈' K를 만나 겪게 되는 인성회복 히어로 드라마. 이동욱은 극중 출세지향 결과주의 형사 '류수열' 역을, 한지은은 과몰입 담당 마약범죄수사대 경위 '이희경' 역을 맡아 열연을 예고한다. 이와 관련 공개된 스틸에서 이동욱과 한지은은 전 연인의 극과 극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사건 현장마다 번번이 마주치는 아이러니로 이동욱은 "또 너냐?"라고 묻는 듯

심드렁한 표정으로 한지은을 바라보는 반면 한지은은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듯 날카로운 눈빛을 쏘아붙이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은 전 연인이기 전에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로 서로의 눈빛에 담긴 아슬아슬한 텐션이 보는 이까지 긴장하게 만든다. 이에 이동욱과 한지은의 관계가 '배드 앤 크레이지'에 어떤 변수를 가져올지 궁금증이 증폭된다. tvN '배드 앤 크레이지' 제작진은 "사소한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고 대사와 표정을 통해 그 장면을 완벽하게 담아내는 이동욱과 한지은의 노력 덕분에 류수열과 이희경 캐릭터가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다. 'ex'라는 과거에 비춰 서로에 대한 현재의 감정을 알 수 없는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봐 달라"며 "짜릿한 텐션을 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tvN 새 금토드라마 '배드 앤 크레이지'는 12월 17일 밤 10시 40분 첫 방송된다. 현유주기자